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신협외 조합원 등급이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배 영 복

신협의 조합원 등급이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embership Level on the Demand Deposits
and the Investments in Credit Union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배 영 복

신협 의 조합원 등급이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문 태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배 영 복

배영복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 | | | |
|-------|-------|------|-----|---|
| 심사위원장 | 조선대학교 | 명예교수 | 이청호 |  |
| 심사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서성호 |  |
| 심사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김문태 |  |

2021년 11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목 차

ABSTRACT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 1 |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4 |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 6 |
| 제1절 신용협동조합의 개괄 | 6 |
| 1. 신용협동조합의 개념과 성격 | 6 |
| 2.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적 개념과 성격 | 8 |
| 3. 신용협동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 | 10 |
| 4. 신용협동조합의 발전과 현황 | 14 |
| 제2절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 | 18 |
| 1. 신용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문헌연구 | 18 |
| 2.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26 |
| 3. 신용협동조합의 경영환경에 관한 연구 | 33 |
| 제3장 연구방법론 | 44 |
| 제1절 가설의 설정 | 44 |
| 제2절 연구모형의 설계 | 47 |
| 1. 가설검증모형의 설계 | 47 |
| 제3절 표본의 선정 | 50 |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52 |

| | |
|----------------------------|----|
| 제1절 기술통계량 | 52 |
| 제2절 단변량분석 | 54 |
| 1. 상관분석 | 54 |
| 2. 평균차이분석 | 56 |
| 제3절 다중회귀분석 | 57 |
| 1. 가설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58 |
| 2. 가설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61 |
| 3. 연구의 시사점 | 65 |
| | |
| 제5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 | 68 |
| | |
| < 참고문헌 > | 70 |

표 목 차

| | |
|---|----|
| <표 1>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 7 |
| <표 2> 신탁과 은행의 차이 | 10 |
| <표 3> 신탁 출자금의 환급과 손실부담 | 12 |
| <표 4> 2020년 말 기준 조합 수 | 16 |
| <표 5> 2020년 말 기준 지점 수 | 17 |
| <표 6> 표본의 구성 | 51 |
|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 52 |
| <표 8> 상관분석 결과 | 54 |
| <표 9> 평균차이분석 결과 | 56 |
| <표 10-1> 법인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 58 |
| <표 10-2> 법인 조합원이 출자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 60 |
| <표 11-1> 상위등급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 62 |
| <표 11-2> 상위등급 조합원이 출자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 64 |

ABSTRACT

The Effects of Membership Level on the Demand Deposits and the Investments in Credit Union

Young Bok Bae

Advisor : Prof. Moon Tae Kim,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rporate members and individual members (upper-grade reference members) on the average balance of demand deposits and the balance of investments that are regarded as the determinants of the profitability of credit unions.

This study analyzed higher individuals and corporate members in 25 regional credit unions located in Gwangju and Jeonnam until the end of June 2021. In order to maintain the homogeneity of the analysis targets and derive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7,707 of the 8,289 union members were selected as the final verification target sample, excluding 64 without required demand deposits and 518 without the average balance of investment for 3 month union membership.

The main verification variables were 317 corporate members and 594 high-grade members, and dummy variables were taken from these samples and used for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hypothesis was verified by including deposit transactions, ordinary deposits, face-to-face transactions, insurance, electronic finance, card payment, VAN subscription, duration of union membership, and gender according to the main transaction subject.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re presented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ean difference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un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both corporate and higher-grade membe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demand deposits. In the average balance of investment, corporate member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while higher-grade membe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showing a contrast.

Second, as a result of univariate mean difference analysis, the effect of corporate members on demand deposits was higher than that of individual members, while the average balance of investment was lower. Both the demand deposit and the average balance of investment were higher for higher-grade union members than for lower-grade union members.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control variables, corporate union members had a very significant effect on demand deposit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1%, but a significant negative (-) regression coefficient was derived on the average balance of investment. This suggests that corporate members are less loyal than individual members, have different purposes of transactions, or rely on the convenience of daily transactions rather than trying to increase assets by dividends by depositing investment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higher-grade union members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average balance of demand deposits and investments compared to the relatively low-grade union members.

Despite the importance of credit unions as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have been verified for banks in the primary financial sector, and profitability studies for credit unions have been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be differentiated from the original study that divided the composition of members into corporate members and higher-grade member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m on the average balance of demand deposits and investments, which are core rates of credit union profitabilit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profitability based on the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caused by low interest rates, low growth, and economic contraction due to COVID-19, and to

this end, the expansion of corporate members and maintenance of high-grade member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balance of investmen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광주·전남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법인 조합원과 조합원 등급이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신협”)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국가차원에서 신협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신협은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인 이른바 공동유대로 결성되는데(신협법 제9조), 이는 시·군·구·읍·면·동 등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 및 경제권(회사)이 있는 주민(혹은 법인)들이 만든 지역신협, 종교, 시장, 협회(의사, 변호사 등) 구성원들이 만든 단체신협, 직장(은행, 병원, 기업 등) 내 임직원들이 만든 직장신협(직장의 지점, 자회사, 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 등으로 구분된다¹⁾. 신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조합의 임원선출 및 실적보고 등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때 이익 배당금의 분배와 조합원의 영리추구 및 편익을 위한 방안도 결정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 이사장, 감사는 조직업무를 분담하고 상호견제와 균형,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규율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종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에 치중하던 은

1) 신용협동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1항),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2항). 실무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은 흔히 ‘신협’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단위신협을 ‘조합’이라고 칭한다. 본 연구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은 약칭 신협과 혼용하여 기술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명칭은 선행연구를 따른다. 우리나라 신협의 공동유대는 지역, 직장, 단체로 구분되는데 이중 지역단위를 공동유대로 하는 지역신협이 전체 신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조정은 2012).

행이 수익성과 안전성이 우월한 소비자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신탁과 같은 소규모 서민금융기관들이 시중 은행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조정은 2012).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금리나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은행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이나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최진배 2004; 조정은 2012). 또한 자영업자 등 지역의 저신용자와 신용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차입자의 금융제약을 완화해 주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조정은 2012).

신탁은 소규모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동질적 집단에서 조직되므로 조합원 상호간에 개인 정보가 쉽게 공유되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호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공동체가 사회적 규제(social sanctions)를 가할 수 있어 채무 불이행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우위를 갖는다(최진배 2004; 조정은 2012).

요컨대, 신탁은 여타 수신기능을 갖는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이미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진 조합원에게 대출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관련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일숙 등 2013).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 사후관리와 관련된 감시 및 감독비용 역시 저렴하고 효과적이기에 정보비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우위를 가질 수 있다(권일숙 등 2013).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이 가지는 이러한 장점에서 비롯한 위기극복 능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특별히 지정하여 신탁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권일숙 등 2013).

신탁중앙회는 2020년 기준 전국 879개 조합의 총자산이 11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3,701억원보다 3.5% 늘어난 3,83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54% 수준인 2,065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밝혔다. 신탁중앙회가 2020년 발발한 코로나 사태에도 1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깜짝 실적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이 대형 은행 위주로 편재되어 신탁이 처한 경쟁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위신협은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²⁾.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신협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이므로 대형화되는 금융시장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은봉희 2015). 실제로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1997년 말 기준 1,666개에 달하던 신협은 파산·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3년 말 기준 1,086개로 무려 34.8%를 감소하게 되었다. 심지어 상당수의 신협들이 여전히 재무상황이 취약하거나 심지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악순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김상녕 2004). 이처럼 다수의 신협이 퇴출되었지만 부실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여전히 잠재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신협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신협은 은행과 비슷한 예·적금, 대출, 전자금융서비스 등 기본업무를 취급하며,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의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보험과 같은 공제업무도 수행한다. 이러한 점은 신협의 법률적 성격을 공익법인의 성격을 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지만, 시중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존속할 수 있다는 것도 반증하고 있다. 신협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자본잠식 상황에 이르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손실이 전가되고 서민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요컨대, 신협의 수익성은 신협이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며, 수익성이 확보되어야만 조합원들의 상호이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과의 상생 등 신협 본연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협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정보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과 동시에 신협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그 성과를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전남 신협의 참조조합원³⁾을 대상으로 신협의 수익성을 결

2) 이에 대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민 금융기관’ 앞세워 신협 942곳 성업…5곳 중 1곳 적자” (출처: 한겨레신문 2014. 05. 09.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

3) 참조조합원: 조합 가입 3개월 이상인 조합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신협과 수신·여신·자동이체·전자금융·공제 등의 거래를 통해 일정요금을 갖춘 조합원을 참조조합원(으뜸이, 믿음이, 도움이)으로 선정한다.

정하는 요인으로 법인 조합원과 개인 조합원(참조합원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으뜸이 조합원)의 특성이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요구불예금은 결제성요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변동 폭이 크지 않아 신협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는 핵심재원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전봉결과 이동규 2014). 한편, 신협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일종의 납입 자본금으로써(신협법 제13조), 조합원을 유지하는 동안 유동성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여 그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법인 조합원과 조합원의 등급이 신협에서 수익성의 핵심요금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시초의 연구로 공헌성이 있으며, 신협 조직이 아닌 개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제1금융권 은행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신협에 대한 연구 또한 사회학이나 경제학적 주제 위주로 다루어져 왔을 뿐, 경영학 분야에서 신협을 대상으로 한 수익성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저금리·저성장·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등에 따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협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수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조합원과 상위 등급의 조합원이 수익성의 근간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잔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신협 중앙회는 법인 조합원과 상위 등급의 조합원에 대하여 더 밀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유인과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공동유대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지역 신협 25개에서 참조합원 이상의 법인 혹은 개인 조합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조

합원 8,289명 중 요구불예금이 없는 64명과 3개월 평균잔액이 없는 518명을 제외한 7,707명을 최종 검증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주된 변수는 법인 조합원과 개인 조합원이며, 신탁거래의 주된 목적이 예금거래인 경우, 주된 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경우, 대면거래 여부, 공제가입 여부, 전자금융 여부, 카드결제 여부, VAN 가입여부, 조합원 유지기간, 성별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는 Microsoft EXCEL과 SPSS26을 활용하였으며, 실증결과는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신탁에 대한 의의, 연혁,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개괄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위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가설의 설정과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표본선정의 근거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은 연구의 결론 및 한계로 구성되었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신용협동조합의 개괄

1. 신용협동조합의 개념과 성격

신탁은 같은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거주하는 차입자, 예금자 또는 경영자 사이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이라는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유대에 기초하는 사회적 담보 또는 사회적 자본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et al. 2002). 사회적 자본은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지속적인 연결망의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Bourdieu et al. 1986),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본이나 개인적 자본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상민 2005; 주선미 2011).

신탁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등 기본적 가치 외에 윤리적 가치(정직·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하여 사람중심의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주선미 2011).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운영원칙으로는 민주적인 조직구조,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강조한다(주선미 2011).

이념 및 운영원칙 등 조직의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규범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제재하는 기능을 하며, 상호간 소망스러운 행동을 유도한다. 규범은 또한 긍정적인 행위를 유도하며 부정적 행위는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주선미 2011).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특히 집단 의사결정이 구성원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보장할 때, 구성원의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주선미 2011). 집단행위의 규범은 공동체 확립과 구성원

의 이익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주선미 2011). 또한 다른 사람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줌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강한 상호 호혜의 원칙을 자리 잡도록 한다(김태룡 2010; 주선미 2011).

요컨대, 신탁은 조합원들 간의 상부상조라는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를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을 내세워 서로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좋은 사회를 건립하기 위한 교육운동, 그리고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박교순 2013).

신탁은 협동조합 차원에서 개념적 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된다(MacPherson 1996; 주선미 2011). 협동조합에 관한 이 정의는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의에서 공식화된 일곱 가지의 원칙들을 함축한 것인데, 이 협동조합원칙은 철저히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주인의식에는 권리의 측면만이 아니라 조합을 유지, 발전시키는 책임과 의무의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은희 2008; 주선미 2011).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 가치 | 원칙 | 실천 |
|------|-----------------|--------------------|
| 자조 | 자발적·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 가입정책, 동등한 기회정책 |
| 자기책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직구조, 투표권, 경영의 역할 |
| 민주주의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본조달방법, 조합원에 대한 보상 |
| 평등 | 자율과 독립 | 정부와의 관계, 시장에서의 위치 |
| 형평 |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대중정책, 조합원교육, 경영훈련 |
| 연대 | 협동조합 간 협동 | 중앙회, 네트워크, 합작투자 |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환경, 이해관계자, 지역발전 정책 |

출처 : Birchall Johnston(2003), 이은희(2008); 주선미(2011) 재인용

신협은 경제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복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출자금의 과다에 관계 없이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인격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인적 측면을 부각하는 점에서 물적 조직과 다른 특성이 있다. 신협은 외부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자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신협과 조합원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는 자조자립의 상부상조 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용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구조로써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는 성격을 보이지만,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필요를 제공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기관은 아닌 비자선 서비스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교순 2013; 은봉희 2015).

이처럼 신협은 공동의 유대범위에서 조합원들에게 편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 및 교육업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과 사회·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한다(은봉희 2015). 특히 신협은 조합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사회적·민주적 및 상부상조에 따른 교육과 조합원의 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협동조합의 철학과 전통에 따라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자 신협과 협동조합 간에 지역적·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은봉희 2015).

신협의 핵심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인데 이는 협동조합운동 선구자들이 요구하는 이상과 이념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으로 개별 조합원들과 그들이 협력하여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사회정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은봉희 2015). 요컨대, 신협의 설립목적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재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조합원에게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은봉희 2015).

2.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적 개념과 성격

신협은 지역경제 및 지역 금융시장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공적 금융기관인 은행의 접근이 제한된 서민가계와

영세기업 등 금융취약 계층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은봉희 2015). 신탁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은행의 신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민가계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금융기관에의 진입 여부를 놓고 내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서민 금융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위상을 정립하는 식으로 금융기관화의 길을 걸어 왔다(조택과 배용수 2009; 주선미 2011).

신탁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한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조조직이라고 일반화 할 수 있다. 박교순(2013)에 의하면, 신탁은 “지역·직장 또는 단체 등에서 공동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 또는 직장동료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비영리 협동조직 금융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즉, 동일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조합원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자금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금을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신탁의 주된 목적이다(은봉희 2015).

우리나라의 신탁은 비영리 금융기관으로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상호금융 중 하나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신탁은 조합원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조합들의 연합조직인 신탁중앙회는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교육사업,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공제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신용사업 및 예금자 보호기금 운영 등을 수행한다. 중앙회는 2004년 1월부터 조합원 예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탁과 은행은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것과 여유자금을 흡수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차

이점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주선미 2011).

<표 2> 신협과 은행의 차이

| 분류 | 신협 | 은행 |
|--------|---------------------|----------------|
| 목적 | 조합원 편의제공, 사회 개량 | 이윤극대화 |
| 성격 | 인격중심의 결합체 | 자본중심의 결합체 |
| 경영방식 | 비영리·비자선적 경영 | 영리위주 경영 |
| 규모확장성 | 조합원 필요에 의거한 제한성 | 수익성에 입각한 무제한성 |
| 배당 | 출자에 대한 배당 제한 | 주식에 대한 제한적 배당 |
| 이용혜택 | 이용고배당원칙에 따른 이용혜택 부여 | 이용고배당원칙 전무 |
| 신용기준 | 대인신용 | 대물신용(물적 담보 치중) |
| 거래형태 | 전속거래 | 일시적 거래 |
| 기구 | 계통기구 통한 계통금융 | 본·지점 관계만 존재 |
| 자산의 귀속 | 조합원 | 자본주와 경영자 |
| 이용자 | 소유자인 조합원 자신 | 주주 이외의 이용 |
| 자본의 형태 | 출자금 | 주식 |

출처 : 주선미(2011) 재인용

3. 신용협동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

신협이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신협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신협법 제1조), 신협은 신협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을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중앙회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탁법 제7조 1항).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신탁법 제7조 2항),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신탁법 제7조 1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탁법 제7조 4항).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탁법 제8조 1항).

1. 출자금 합계액의 다음 각호의 최저한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탁법 제14조 4항).
 -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신협법 제8조 2항).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신협법 제8조의2).

<표 3> 신협 출자금의 환급과 손실부담

| | | |
|----------|---------------------------|--|
| 납입시기 |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 |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 |
| 중도인출 | 30일전에 인출예고통지 후 중도인출 가능 | 불가능 |
| 탈퇴시 환급시기 | 탈퇴시 즉시 전액 환급 |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총회 이후 7영업일 이내 전액 환급 |
| 손실부담 여부 | 책임 없음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손실부담 |

출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cu.co.kr>

신협이 설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신협법 제11조).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인 동시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이라 할 수 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은 출자금 잔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한편, 2015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사망·파산·피성년후견인·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신협법 제16조).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신협법 제17조 1항).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신협법 제17조 2항).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된다. 또한, 신협의 출자금은 2007. 1. 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신협법 제23조).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신협법 제24조).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신협법 제27조 1항).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신협법 제27조 2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신협법 제27조 3항).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신협법 제27조 4항).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협법 제27조 5항).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신협법 제27조 6항). 상임이사는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협법 제27조 7항).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신협법 제27조 8항).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협법 제27조 9항).

임원은 신협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협법 제33조 1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신협법 제33조 2항),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신협법 제33조 3항).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협법 제33조 4항).

4. 신용협동조합의 발전과 현황(2020년 말 기준)⁴⁾

신협은 본래 자본주의 초기 독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50년대 이후 신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고, 조직은 점차

4)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재포(2010), 박교순(2013), 최진배(2013), 은봉희(2015), 구정옥(2020), 신협중앙회 통계자료(2021) 등 참조.

확대되었다(은봉희 2015). 우리나라 신탁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적 빈곤 극복과 경제적 자활 그리고 민족자본의 육성을 내부의 역량으로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경제적 운동조직으로서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가져왔다. 1960년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출발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었다(은봉희 2015).

1972년 8월 17일 제2338호로 신탁법이 제정·공포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단순히 출자금을 조성하여 대출하던 업무에서 벗어나 예적금을 취급하게 되었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신탁은 1980년대부터는 조합 수 및 조합원 수, 그리고 자산에서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1988년 12월 신탁법의 개정으로 종래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부를 연합회로, 그리고 종래의 연합회는 중앙회로 개편되었다가 1997년 12월에는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개편되었는데, 중앙회는 국가공공단체와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보호예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강병호 2008; 은봉희 2015).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탁은 다른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났고 지역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유대 관계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특성이 남아 있다(박교순 2013; 은봉희 2015).

신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환경의 급변과 경영부실, 무리한 담보대출로 인한 자본 불건정성 등으로 전체 신탁의 40%가량이 파산과 합병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신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재무건전성과 안정성 재고에도 함께 주력하였다.

신탁은 2008년 8월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이 가능하면서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조합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전산정보망의 안정성을 위해 ‘차세대 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신탁은 대출규제 강화, 감독기준 강화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과 함께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와 경쟁심화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중앙회는 2020년 기준 전국 879개 조합의 총자산이 11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3,701억원보다 3.5% 늘어난 3,83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54% 수준인 2,065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합원 배당 1,534억원(배당률 2.7%),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293억원, 교육 지원 및 장학사업에 43억원 등이 포함된

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여 전국 144개 신협에서 513개 소상공인에 9억 5,00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신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취약계층 지원 및 후원, 전통시장 상생 사업, 지역특화 사업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5억원을 지원했다(한국경제신문 2021. 05. 03., 이로운넷 2021. 05. 03. 기사 일부 발췌 인용). 이러한 점은 신협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공유하는 고유한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최근 3개년 동안 지역 조합 수와 지점 수를 요약하면 <표 4>, <표 5>와 같다.

<표 4> 2020년 말 기준 조합 수

| 지역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0 | | |
|---------------------------------|------|------|------|------|-----|----|
| | | | | 지역 | 직장 | 단체 |
| 전 국 | 888 | 883 | 879 | 670 | 128 | 81 |
| 서 울 | 120 | 119 | 118 | 59 | 41 | 18 |
| 부 산 경 남 (부산) (울산) (경남) | 111 | 111 | 111 | 70 | 22 | 19 |
| | 48 | 48 | 48 | 30 | 8 | 10 |
| | 10 | 10 | 10 | 7 | 1 | 2 |
| 인 천 경 기 (인천) (경기) | 53 | 53 | 53 | 33 | 13 | 7 |
| | 142 | 141 | 141 | 110 | 19 | 12 |
| | 47 | 46 | 46 | 32 | 8 | 6 |
| 대 구 경 북 (대구) (경북) | 95 | 95 | 95 | 78 | 11 | 6 |
| | 103 | 100 | 100 | 85 | 8 | 7 |
| | 55 | 53 | 53 | 43 | 4 | 6 |
| 대 전 충 남 (대전) (충남) (세종) | 48 | 47 | 47 | 42 | 4 | 1 |
| | 102 | 102 | 101 | 84 | 14 | 3 |
| | 44 | 44 | 43 | 32 | 8 | 3 |
| 광 주 전 남 (광주) (전남) | 52 | 52 | 52 | 47 | 5 | - |
| | 6 | 6 | 6 | 5 | 1 | - |
| | 89 | 89 | 88 | 72 | 6 | 10 |
| 충 북 전 북 강 원 제 주 | 44 | 44 | 44 | 30 | 4 | 10 |
| | 45 | 45 | 44 | 42 | 2 | - |
| | 81 | 81 | 81 | 71 | 5 | 5 |
| 71 | 71 | 71 | 59 | 7 | 5 | |
| 39 | 39 | 39 | 32 | 6 | 1 | |
| 30 | 30 | 29 | 28 | - | 1 | |

<표 5> 2020년 말 기준 지점 수

| 지역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0 | | |
|---------------------------------|------|------|------|------|----|----|
| | | | | 지역 | 직장 | 단체 |
| 전 국 | 779 | 793 | 796 | 759 | 23 | 14 |
| 서 울 | 57 | 59 | 59 | 42 | 16 | 1 |
| 부 산 경 남 (부산) (울산) (경남) | 111 | 108 | 104 | 98 | 3 | 3 |
| | 49 | 47 | 44 | 41 | - | 3 |
| | 19 | 18 | 17 | 17 | - | - |
| | 43 | 43 | 43 | 40 | 3 | - |
| 인 천 경 기 (인천) (경기) | 162 | 166 | 170 | 170 | - | - |
| | 35 | 34 | 34 | 34 | - | - |
| | 127 | 132 | 136 | 136 | - | - |
| 대 구 경 북 (대구) (경북) | 106 | 106 | 106 | 105 | - | 1 |
| | 63 | 68 | 69 | 68 | - | 1 |
| | 43 | 38 | 37 | 37 | - | - |
| 대 전 충 남 (대전) (충남) (세종) | 100 | 100 | 99 | 96 | 2 | 1 |
| | 43 | 42 | 41 | 38 | 2 | 1 |
| | 47 | 48 | 47 | 47 | - | - |
| | 10 | 10 | 11 | 11 | - | - |
| 광 주 전 남 (광주) (전남) | 93 | 98 | 97 | 90 | - | 7 |
| | 54 | 59 | 58 | 51 | - | 7 |
| | 39 | 39 | 39 | 39 | - | - |
| 충 북 | 52 | 51 | 54 | 53 | 1 | - |
| 전 북 | 48 | 50 | 50 | 48 | 1 | 1 |
| 강 원 | 25 | 26 | 25 | 25 | - | - |
| 세 주 | 25 | 29 | 32 | 32 | - | - |

출처: 2020년 실태조사

제2절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

1. 신용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문헌연구

류덕위(2008)는 글로벌 금융 빅뱅과 금융 구조조정의 과정을 살펴보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해 왔으며, 광범위한 개혁으로 금융 시스템이 경쟁력과 시장 주도로 변모했으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기관 간의 격차가 커지는 등 막대한 전환비용을 초래하였다(류덕위 2008). 신용협동조합은 신용등급이 취약하고 은행 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류덕위 2008).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으로 많은 이들이 폐업하고 운영근거를 상실한 상태여서 신용등급이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금융제약이 늘어나고 있다(류덕위 2008).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제약과 개혁감독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와 위험관리를 개혁하고 관계은행과 지역사회기반의 전문화 전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류덕위 2008).

전선애(2008)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융협동조합으로 입지를 잃고 있지만 신용부족자에게 신용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전선애 2008). 건전하고 강력한 지역은행은 고급 규제 및 인센티브 호환 예금보험 시스템을 필요로 하므로 보험기금의 적정규모는 보험금의 적정한 예금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보험료가 최적의 목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전선애 2008).

지역은행의 각 부문별로 운용되는 별도의 예금보험금은 지역은행의 경쟁영역을 평준화하는 공적자금으로 통합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전선애 2008). 통합기금은 기존 공적예금보험제도인 KDIC에 통합되어 기금운용 규모 경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전선애 2008). 지역은행의 각 부문에 대한 공공규제기관의 심사 및 규제 권한의 차이는 유사한 수준으로 동등화되어

야 하며,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화하고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전선애 2008).

이를 확장하여, 이주원(2010)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회원들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노동계층의 금융기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욕구의 변화에 따라 일반인의 상업대출기관이 되고 있다(이주원 2010).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하다(이주원 2010). 이러한 수단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시스템은 신용도 측면에서 안정과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이주원 2010). 이에 대하여 재원확보와 상당한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대출 가능성에 대한 법적조항을 제안하였으며,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지정 적립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에서 이사의 예금과 경영진을 배제하고 차등보험료를 시행과 감독강화, 부실노조 청산방법 다양화, 전국 신용협동조합의 부실노조 직접관리, 책임경영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최진배(2009)는 지역금융기관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최진배 2009).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은 아직까지 안정된 영업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융자유화 이후 주된 영업기반인 가계금융부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최진배 2009).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용협동조합은 성장위주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영업기반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신용협동조합의 정체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진배 2009). 신용협동조합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위험수취능력을 제고하면서 조합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출자금의 확충, 지역으로의 헌신성, 신협중앙회 조직의 강화를 통한 개별조합의 영세성 극복과 조합원에게 신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별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진배(2010)는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민금융기관은 주로 저신용계층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

관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예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서민금융기관이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저신용계층에 대해 신용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최진배 2010). 그 결과 서민들은 극심한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최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최진배 2010). 서민금융기관은 부동산 관련대출이 영업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존립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계적 금융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영업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을 독려하는데 머물지 말고 이들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최진배 2010).

같은 맥락에서 정남기(2011)는 서민금융 침체의 원인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원인으로서는 건전성의 부족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수가 감소하였고, 서민 금융기관들의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회피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스스로 위축된다고 진단하였다(정남기 2011). 서민 금융기관은 은행과 달리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수익구조가 단순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용자산의 주요 고객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층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의 높은 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서민금융기관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정남기 2011).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여신 금리차이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민금융기관들 스스로 자체적인 예금보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정남기 2011). 둘째, 위험금융이라 할 수 있는 서민금융을 기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정남기 2011). 셋째, 서민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건전성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확대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시켜야 한다(정남기 2011). 넷째,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서민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금융 상품의 개발능력을 배양해야 한다(정남기 2011).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스스로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제도권 위협에 처한 서민 금융시장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정남기 2011).

최진배(2013)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금융자유화 정책에 따른 광범위한 금융구조 변화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경쟁력 강화와 금융계에서 고위 등급으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이 신용협동조합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 진정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을 들어 신협이 사업 불안정성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 주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최진배 2013).

류덕위(2013)는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조달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류덕위 2013).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 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류덕위 2013). 첫째, 정체성 중시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류덕위 2013).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신협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류덕위 2013).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류덕위 2013).

최진배(2015)는 한국 신협이 1980년대 이후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길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나 신협에 대한 전략적 성공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정부는 신협의 성과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차입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진배 2015). 한국 신협은 아직도 경영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으로서의 평판도 좋지 못하며 평판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길이 계속 지켜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최진배 2015). 나아가 서민금융기관으로 된 것 자체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표현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최진배 2015).

은봉희(2015)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활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서민금융과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인식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지원이 위축되었고,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은봉희 2015). 신용협동조합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바, 조직과 인사 측면, 재무와 회계 측면, 경영성과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협동조합은 조직과 인사 측면에서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유대를 확대하여 서민계층의 금융을 보호하고 금융배제 현상을 완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 고객인 조합원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의 만족도를 증대시켜야 한다(은봉희 2015). 아울러 조합의 구성원인 직원과 실무책임자에게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위관리직인 임원은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조건과 임원 선출제도를 변경하여 도덕성을 강화한 조합의 임직원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신탁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은봉희 2015). 둘째, 재무상태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 조합은 단기간의 고수익보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 방식을 제안하였고, 수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반예금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이 먼저 찾는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지점의 역할개선이 필요하다(은봉희 2015).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고령화 조합원을 배려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등의 인프라 활용을 권장하였다(은봉희 2015). 신탁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모델보다는 새로운 제휴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조합원의 편리와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수수료 관련 사업들을 더욱 건전화시켜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구축되어야 한다(은봉희 2015). 셋째,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수익구조, 수수료 수익구조, 손실조합의 실태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의 환경에 적절한 사업을 특성화하거나 타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가 요구되며 조합원만족도를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상품, 가격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

로써 조합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은봉희 2015). 마지막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만큼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측정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한 신용협동조합이 구축되도록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은봉희 2015).

최진배(2016)는 유럽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은행의 변화추세와 이에 따른 한국 신협을의 진로를 제안하였다. 유럽 협동조합은행은 은행그룹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별성을 제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금융기관의 탄생을 촉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신협은 농협상호금융을 본받아 협동조합은행그룹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진배 2016). 그러나 그러한 전환이 개별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 제고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인다(최진배 2016).

김명록과 최진배(2016)는 한국 지역신협의 성장의 특징을 진단하였다. 한국 지역신협은 196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협동조합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김명록과 최진배 2016). 그러나 최근 들어 그것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논의가 지역신협의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주목이 없기 때문에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특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명록과 최진배 2016). 신협중앙회에서 제공한 2004년~2015년 개별조합의 재무제표와 대출 및 예금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2000년대 지역신협의 성장에는 성장론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신협의 성장은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비과세 예금에 그리고 운용측면에서는 거액대출, 담보대출 및 기타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김명록과 최진배 2016). 또한, 지역신협의 성장방식은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익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신협이 협동조합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명록과 최진배 2016).

송재일(2017)은 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신협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였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참여하는 시장플레이어로서 금융기관의 본연기능인 금융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유사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를 다소 많이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러한 규제는 크게 보면 금융규제

하지만, 의외로 협동조합이기에 받는 불이익도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송재일 2017). 규제는 “law and equity”에서 보통법의 불합리를 잡아주는 형평법의 구실을 하며, 국가의 존재목적에 일깨우는 특별법으로 작용하며, 협동조합 금융이야말로 규제당국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의 금융 즉, ① 금융복지라 할 수 있는 서민 금융(inclusive finance), ②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금융(local finance), ③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 등 상생의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그리고 ④ 조합원간 서로 돕는 상호금융(cooperative finance) 등을 수행한다(송재일 2017). 따라서 이러한 바람직한 금융의 4가지 영역의 교집합이자 교차영역인 협동조합금융에는 그에 맞춘 적절한 규제, 그리고 사회적 형평과 신의성실원칙을 근거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기능별 규제원칙, 동등 규제원칙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완화와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송재일 2017). 우리나라 현실에서 협동조합금융은 제2금융이기에 갖는 제한된 사업영역으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에 맞닿아 있으며, 또한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비슷한 성격의 상호금융기관이 경쟁하기에 불필요한 협동조합간 경쟁이 유발되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해쳐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독과점 규제나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송재일 2017).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으로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최대한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다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송재일 2017).

최진배와 김명록(2017)은 햇살론과 신탁을 중심으로 금융협동조합이 서민 금융정책에 적극적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들의 금융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햇살론과 같은 정책대출이 나타났는데, 서민금융기관으로 알려진 신탁은 시중은행과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거액대출을 증가시키는 자산경쟁 방식을 취해 왔다(최진배와 김명록 2017). 이들은 상업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신탁은 햇살론을 취급하려하지 않고 취급하더라도 연성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체율도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수진(2017)은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현황 및 신탁의 역할 제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협동조합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수진 2017).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담보부족 및 매출실적 미비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신협 등 조합형 금융기관보다는 일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이수진 2017). 이에 따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건전성 규제 완화, 협조대출의 확대, 대출심사평가모형의 마련 등을 통해 금융 협동조합으로서 신협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이수진 2017).

최진배와 권오혁(2018)은 1980년대 이후 ICA(국제협동조합연맹)가 협동조합의 정체성 문제를 검토할 때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관리는 협동조합 원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1995년 ICA가 정체성선언을 할 때 약화된 조합원 참여와 민주적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들은 한국의 지역신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특히 약화된 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최진배와 권오혁 2018). 이들은 한국의 지역신협이 조합원의 참여 의미와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민주적 관리에는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신협의 정체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진배와 권오혁 2018).

이를 확장하여 최진배와 권오혁(2018)은 신협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정부의 신협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신협법 제정시 조합원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방임을 적시하였다. 정부의 주된 관심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신협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두고 신협의 내부사정이 정부간섭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나 정부의 간섭은 신협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운동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최진배와 권오혁 2018).

구정옥(2020)은 1960년부터 1981년까지 정부주도 경제개발기간 동안 한국 신협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지도자의 지도방식, 법체계와 정책환경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협발전 요인들을 통하여 한국형 신협모델의 형성 및 정착과정을 고찰하였다(구정옥 2020). 도입시 미국 신협정관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 한국 신협은 전형적 개발도상국이었던 1960년 신협운동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지도자들에 의해 도입되어 저축(출자)이 강조되었고, 법적 보호를 원하는 신협과 경제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내자동원이 필요했던 정부의 이해가 일치되어 1972년 신협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미국신협과 다른 한국형 신협모델이 만들어졌다(구정옥 2020). 신협법에는 공동유대, 무보수임원제 등 미국신협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에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했던 예·적금 수입,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업무, 조합의 연합회 가입의무와 연합회의 검사·감독권 등이 가미된 한국형 신탁모델이 규정되었고, 이후 신탁은 새마을운동 확산 속에 정부의 조직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구정옥 2020).

2.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홍봉영과 구정옥(2000)은 DEA(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용협동조합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체로 보아 예수금은 산출물로 취급하여, 투입물은 직원 수, 영업장의 면적(또는 업무용부동산), 경비 등으로 하고, 산출물은 신규예금취급 건수, 신규대출건수, 예수금기말잔액, 대출금기말잔액, 영업이익 등으로 하여 DEA 모형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홍봉영과 구정옥 2000).

DEA에 의한 연구결과, 기존의 경영평가방법이 제공할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입물과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DEA에 의한 분석정보와 기존의 경영평가방법에 의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조합들의 운영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홍봉영과 구정옥 2000).

홍봉영 등(2002)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200개 지역신탁의 생산성 변화를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신탁의 2001년의 생산성은 외환위기 당시의 생산성보다는 높았지만, 1999년 후부터는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홍봉영 등 2002). 생산성 하락의 주된 원인은 Δ TECH의 하락, 즉 기술혁신의 퇴보에 있었으며, 순수기술효율성(Δ PTE)과 규모효율성(Δ SCALE)은 증가하였으나 선도신탁들의 효율적 프론티어 하락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홍봉영 등 2002). 그리고 규모별로 볼 때 소형 신탁의 생산성은 아직도 외환위기 당시의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협동조합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투입물의 효율적 관리에 의한 비용효율적인 경영은 물론 기술혁신에 의한 경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봉영 등 2002).

구정옥(2003)은 ABC 모형을 적용하여 신용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협을 활동으로 예적금활동, 신규대출활동, 대출사후관리활동, 여유자금운용활동, 공제상품판매활동, 부대서비스활동, 조직관리활동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직원의 활동소비시간과 비용발생원인을 기초로 총계정원장상 관리비항목을 이들 활동으로 연결시켜 활동원가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각 활동의 원가를 적절한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에 배분하였다. 금융상품의 수익성 지표로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자산이익률을 이용하고, 수신상품의 경우에는 총자금비용률을 이용하였다(구정옥 2003). 분석결과, ABC를 이용할 경우 신협관리자는 금융상품의 코스트와 재무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활동과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과정에 코스트를 높이는 업무방식, 상황, 업무요건 등에 관한 가치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구정옥 2003).

강은경(2005)은 확률적 프론티어(SFA)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7개 대도시 194개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필요한 투입요소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반응변수는 총비용을 설명변수는 산출물과 투입물을 고려하였는데, 산출물로는 대출채권과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의 합으로 정의되는 유가증권을 고려하였으며, 투입물로는 단위당 투입가격을 고려하기 위해서 직원수 1인당 인건비(인건비/직원수), 예금 1단위당 예금이자(예금이자/예금), 유형자산 1 단위당 관관비(관관비/유형자산)를 반영하였다(강은경 2005). 분석결과, 전체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분석결과 50%의 신용협동조합들이 가장 효율적인 신용협동조합보다 약 17% 이상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25%의 신용협동조합들이 가장 효율적인 신용협동조합보다 약 9% 이하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은경 2005).

심재포와 백자욱(2010)은 창원지역 소재 금융기관 중에서 자산규모가 비교적 비슷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영효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라는 동반자가 있는 지역농협이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게 나타났지만 수익성을 배제하고 중개성만 발취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새마을금고가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협은 전반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장하여 백자욱(2013)은 DEA를 이용하여 국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 동안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고정자산과 자본금을 투입변수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채권 및 예수금을 산출변수로 하여 DEA의 CCR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 반면, 지역농협은 4개의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나타냈다(백자욱 2013). 농협중앙회라는 동반자가 있음에도 지역농협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백자욱 2013). 자산 규모는 신용협동조합이 제일 낮고,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효율성은 지역농협이 제일 낮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자욱 2013).

신탁에서는 2002년부터 경영컨설팅이 도입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신탁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이에 강성무와 류덕위(2012)는 급격하고 복잡한 금융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탁의 경영 각 부문과 경쟁환경 전반에 걸쳐 해결방안 및 관리기법 등을 자문하여 줄 경영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탁중앙회 경영컨설팅이 단위 신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단위신탁이 중앙회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컨설팅수요자 특성과 컨설팅공급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신뢰도와 중앙회 컨설턴트의 전문성은 조합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둘째, 조합의 컨설팅 지원과 활용의지는 조합의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셋째, 중앙회의 컨설팅 수행능력은 조합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조합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수혜자인 조합은 컨설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여, 경영상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인 중앙회는 컨설팅 핵심역량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개발을 위하여 컨설팅 업무방법 개발,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위하여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컨설팅 전문직군제 실시,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강성무와 류덕위 2012).

연도별로 효율성이 가장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김병철 2013). 그리고 SBM-CCR 평균 효율성과 DEA Window 기법에 의한 CCR 평균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윌콕슨의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SBM 효율성과 Window 효율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철 2013). 효율적 지역이 되기 위한 지역별 최적 투입 및 최적 산출 요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조합수와 대출금요소를 증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철 2013).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적절한 조합수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고정자산의 감소, 골드-클린뱅크 선정, 대출 증대위한 전략 강구, 영업 마케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김병철 2013).

김종대 등(2014)은 부트스트랩 DEA 기법을 이용하여 광주·전남 지역신협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영 효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전남 지역신협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각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적 DEA와 부트스트랩 DEA 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기술 비효율성의 주원인이 순수 기술효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대 등 2014). 또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부트스트랩 DEA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형은 7.1%, 농촌형은 평균 9.2%의 기술비효율성이 나타났다. 한편, 규모의 수익효과 측면에서는 일반적 DEA 분석결과, 도시형이 평균 IRS 19개, CRS 17개, DRS 10개로, 농촌형은 평균 IRS 9개, CRS 11개, DRS 4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김종대 등 2014). 그러나, 부트스트랩 DEA 기법으로 분석해 보니 모두 IRS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효율성 분포 분석결과, 일반적 DEA 분석의 경우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신협의 수는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이 2008년에는 각각 19개, 28개, 22개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17개, 22개, 23개로 분석되었다(김종대 등 2014). 한편, 부트스트랩 DEA 기법으로 분석 결과,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신협의 수는 2008년, 2011년 모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종대 등 2014).

신협의 경우, 신협의 이념 자체에 사회적책임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협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신협업무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으며, 신협의 사회공헌활동은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강하다(박우영 등 2016). 하지만, 신협은 정부조직이 아니라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신협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영업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신협의 가치를 제고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박우영

등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박우영 등(2016)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신탁의 사회공헌활동이 신탁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부협찬 방식은 신탁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우영 등 2016). 따라서 앞으로 신탁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협찬 방식보다는 공익사업과 자원봉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방향은 신탁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박우영 등 2016). 지역신탁의 개별적인 사회공헌 활동 뿐만 아니라 최근 신탁중앙회에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신탁사회공헌재단의 사회공헌활동 방식도 기부협찬 방식보다 공익사업과 자원봉사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제언하였다(박우영 등 2016).

배기수(2016)는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 주요 공급자인 지역농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의 경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서민 금융기관 간의 경영효율성 분석을 토대로 서민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DEA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입변수로 임직원수와 총자산을 이용하고 산출변수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경영효율성을 평가한 후 서민금융 역할 제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충북 저축은행과 충북 산림조합은 지속적으로 경상순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분석조차 불가능하였으며, 충북 지역농축협, 충북 신용협동조합, 충북 새마을금고도 경영효율성이 50% 미만으로 나와 50% 이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기수 2016). 이러한 비효율이 존재하는 데에는 금융수익발생구조와 산업의 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융수익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데서 수익이 발생되고, 자금을 맡아두고 이자를 지급해주는 데에 비용이 발생된다(배기수 2016). 현재 충청북도내 경영성과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부분 자금을 맡겨만 두는 노인층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배기수 2016).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자금을 빌려서 활용할 만한 곳이 없는 반면,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지역농축협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금 운용기회가 적어 수익을 발생시킬 기회가 적다(배기수 2016). 반면,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의 경우 자금을 운용할 기회가 많아 상인들의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론하였다(배기수 2016). 서민금융도 이러한 추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민들에게 재테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배기수 2016).

김희창(2017)은 Dynamic-Network SBM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충청지역 소재 175개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ynamic-Network SBM 모형은 Network SBM모형과 Dynamic SBM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단계별 결합 활동뿐만 아니라, 기간 효율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효율성 분석이 가능하다(김희창 2017). 분석결과, 첫째, 분석기간 중 대전·충청지역 신용협동조합의 비효율성은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단계에서의 비효율성보다는 수익단계의 비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공동유대별로는 직장신협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희창 2017). SBM모형, Network SBM모형, Dynamic SBM모형의 효율성 점수와 비교분석한 결과, 모형별 특성에 따른 평균 효율성 점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 효율성 점수와 순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모형 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DN-SBM의 효율성 결과에 대한 강건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김희창 2017). 투입-산출요소에서의 비효율성과 개선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산출요소인 조합원 확보와 영업이익, 수익기능단계에서의 기간 간 결합요소인 고정이하여신의 비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김희창 2017).

현정환(2018)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 신용조합의 영업다각화가 재무성과를 통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 신용협동조합에서 수집한 신용협동조합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다각화가 신용조합의 자산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대출문제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현정환 2018). 그러나 다각화와 자산품질의 관계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적인 관계로 과다각화는 자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정환 2018). 구체적으로 다각화가 지출 증가를 가져오지만 다각화로 인한 이익 증가는 지출 증가를 능가하여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현정환 2018).

백자욱(2020)은 한국과 미국의 서민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기법(DEA)을 적용하여 경영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서민금융회사로는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으로 하였고 미국의 서민금융회사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백자욱 2020). 각 그룹별·연도별로 3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발췌하였으며, 자료포락분석기법 적용을 위해 투입변수로는 총비용을 그리고 산출변수로는 당기순이익과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백자욱 2020). 분석결과, 미국의 서민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이 한국의 서민금융회사의 효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자욱 2020). 가장 효율적인 금융회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미국의 저축은행, 미국의 신용조합, 한국의 저축은행, 한국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지역농협이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저축은행이 가장 효율적인 금융회사로 나타났다(백자욱 2020).

3. 신용협동조합의 경영환경에 관한 연구

관계형금융 이론에서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며,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으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관계형 금융을 강조한다(이덕수와 박의범 2011). 은행과 기업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를 지속하게 되면, 기업은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얻게 되고 은행은 확고한 장기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덕수와 박의범 2011). 이러한 관계형금융에 대한 VAR모형의 거시연구는 국가 간 또는 그룹 간의 비교연구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덕수와 박의범(2011)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그룹에 대하여 금융긴축에 대한 대출변화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시중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지역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관계형금융의 행태가 확인되었다(이덕수와 박의범 2011). 이는 우리나라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의 고객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음을 보여준다(이덕수와 박의범 2011).

조정은(2012)은 전국 지역신협의 2011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적정성 강화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신협의 성과관리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신협의 경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신탁의 소재지에 따라 경제환경이나 조합원의 경제활동 수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탁의 경쟁전략은 반드시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조정은 2012).

전국의 신탁 671개를 그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광역시, 일반시, 읍/면 단위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간의 차이와, 그룹별 순자본비율 향상요인을 탐색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 신탁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 단위 소재 그룹이 제일 규모가 작고, 일반시와 광역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지에 따라 자산운용형태, 대출형태, 운영성과 등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정은 2012).

성과변수 중 순자본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조직운영, 자산운용형태, 대출형태, 대출담보형태, 용도별 대출비율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둔 각각의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각 그룹별로 회귀모형의 유의성과 설명력이 다르게 분석되었다(조정은 2012). 광역시 소재 그룹의 경우 상기 5개 독립변수군 중 자산운용형태, 대출형태, 대출담보형태, 용도별 대출비율 모형이 유의성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용도별 대출비율이 순자본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구입자금과 자동차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정은 2012).

일반시(市) 그룹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조직운영, 대출형태, 대출담보형태, 용도별 대출비율의 세 가지 모형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회귀모형은 조직 운영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둔 모형으로서, 조합원수가 많을수록 순자본비율에 부(-)의 영향을, 지점수가 많을수록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은 2012). 읍/면 단위 그룹에서는 조직운영, 자산운용형태, 대출형태, 대출담보형태의 네 가지 모형에 대하여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출담보형태 모형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조정은 2012). 이 모형에 따르면 읍/면 단위 소재 지역 신탁의 경우, 아파트담보비율, 주택담보비율, 예적금담보비율, 금융기관 담보비율이 순자본 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은 2012).

구정옥과 현정원(2013)은 25개 신용조합의 합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BM 데이터 포락선 분석의 비모수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자비용, 행정비용, 기타비용이 투입으로 사용되며, 대출, 예금, 영업이익 등이 산출물로 활용하고, 패널자료를 통해 사전합병(1999), 합병연도(2000), 사후합병(2001, 2002, 2003, 2004)의 효율

성을 추정한 결과, 합병은 지난 합병 전(2004)에만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구정옥과 현정원 2013). 이러한 현상은 신용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유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사전합병 후 처음 4년(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동안 효율성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더라도 효율성 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된 신용협동조합의 수는 17개(68%), 16개(64%), 14개(56%), 18개(72%)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합병이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정옥과 현정원 2013).

박창수와 이정하(2014)는 우리나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예금은행에 비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농·수·산),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대출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실질대출이자율은 도시형 조합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출에만 (-)의 영향을 미치고, 회사채 수익률이 커질수록 각 조합의 총대출이나 가계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조합과 예금은행 간의 가계대출 경쟁에 있어 두 금융기관간에 ‘풍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박창수와 이정하 2014). 주택가격도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나 농·수·산보다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더 크게 나타나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출결정요인을 심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적 시사점도 다르게 도출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박창수와 이정하 2014).

권일숙 등(2015)은 단위신협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속에서도 빠른 회복능력을 나타낸 단위신협과 그렇지 못한 단위신협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신협의 지점을 금융위기 전후 생산성이 좋았던 단위신협 그룹(HH)과 그렇지 못했던 단위신협 그룹(LL)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에 대해 수익성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총자본비율이 높고 이익대비 비용을 나타내는 수지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권일숙 등 2015).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HH그룹에서는 예대마진율과 예대율이 높고 직원 1인당 연봉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반면, LL그룹에서는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낮고 직원 1인당 연봉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단위신협 중 생산성이 좋은 그룹은 운영수익성과 유동성을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통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음을 의미한다(권일숙 등 2015). 또한 동일한 단위신협이라 할지라도 해당신협의 생산성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자원과 경영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금융위기기에 대한 대응능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권일숙 등 2015).

김성태와 배근호(2015)는 국내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신협을 중심으로 대출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효과를 검증하였다. 신협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패널자료를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협의 대출시장에 차입자의 역선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이자율이 자산건전성과는 U자형 비선형관계를, 수익성과는 역U자형 비선형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태와 배근호 2015). 이러한 결과는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효과가 신협의 대출시장에 존재함을 의미한다(김성태와 배근호 2015).

강만수 등(2015)은 신용협동조합의 평균이익이 은행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의 다양화로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잠재성장모형(LGM)을 통한 신용협동조합의 신규취급대출(담보, 신용)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성장곡선모델의 매개변수를 일반적으로 AMOS의 프레임워크와 EQS, LISREL과 같은 관련 방법 내에서 추정된 결과, 잠재성장곡선모델의 경사계수는 국소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성장곡선모델의 절편계수는 국소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만수 등 2015).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경영참여가 가능할 때 금융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고 이익을 배분하지만, 반대의 경우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이른바 대리인 문제가 나타난다(최진배와 김명록 2016). 최진배와 김명록(2016)은 신협을 대상으로 금융협동조합과 대리인 문제가 한국의 금융협동조합에서도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해, 순이자마진과 임금보상비율이라는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조합원의 수, 자산규모, 중앙회 예치금, 거액대출, 예대율, 부실대출비율, 자본자산비율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최진배와 김명록 2016).

분석결과, 조합원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대리인 문제를 대리하는 순이자마진과 임금보상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밝혔으며, 조합원의 통제에서 벗어난 중앙회 예치금과 조합원의 상호성을 제약하는 거액대출이 증가할수록 대리인 문제가 크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함하였다(최진배와 김명록 201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리인 문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진배와 김명록 2016).

박정희(2016)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11개 기간 동안 대구·경

북 지역에 소재한 90개 지역신협을 대상으로 국내 신용협동조합의 여신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신협의 순자본비율이 증가할수록 여신건전성이 향상된다는 유의한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신협이 순자본비율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정희 2016). 비이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여신건전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통하여 신협의 경우 자산 중 현금과 예치금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자산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이자영업의 비중을 제고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박정희 2016).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신협의 대출증가율은 부실여신비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신협의 대출비중 등 신협의 자산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박정희 2016). 한편, 규모의 증대가 여신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약한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신협이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규모의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정희 2016).

남주하와 최재원(2017)은 1997년 국내 금융위기 이후 신협의 심각한 부실화로 인해 327개 신협에 4조 7천억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이러한 부실화의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협의 부도원인과 부도예측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협의 부도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도예측모형의 분석을 위해 먼저 부도신협군으로는 2009부터 2016년까지 부도가 났거나 사고가 난 신협과 2015년 기준 부도 및 사고가 없는 신협을 대상으로 로짓 최우추정법에 의한 분석결과, Case1과 Case2의 표본을 이용한 전반적 예측력은 각각 97.5%와 94.5%로 나타나 신협의 부실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남주하와 최재원 2017). 다만 제1종 오류가 높아 부도신협군과 건전신협군에 대한 다양하고 정교한 표본선택을 구축하여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남주하와 최재원 2017).

이와 유사한 연구로, 강상목과 정수임(2020)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대출에 대한 서로 상이한 조합을 대상으로 메타프런티어 접근을 실행한 연구가 미진한 점과 2단계 SFA접근법을 사용하여 비용접근 형태의 메타프런티어 측정을 시도한 연구가 없음에 착안하여, 부산과 경남지역에 있는 신협 내부의 세 형태의 조합을 대상으로 메타프런티어 모형을 사용하여 부실대출의 메타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그룹의 기술효율과 기술격차로 분해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실증분석 결과, 지역조합의 경우, 자산의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양(+)의 부호로 나타나 자산이 증가하면 정상

대출이 증가하고 따라서 부실대출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석하였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계수값도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대출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직장조합의 경우, 자산의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양(+)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자산이 증가하면 부실대출도 증가하지만 값이 유의적이지 않았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그러나 단체의 경우, 자산의 추정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음(-)의 부호를 보여 자산이 증가할 경우 대출이 증가하여도 부실대출이 감소하여 지역 및 직장 조합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부실대출의 기술효율, 메타효율, 기술격차의 비교에서 확인한 결과, 기술효율에서는 직장이 가장 높고, 단체가 가장 낮았고, 직장은 해당 업체 재직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근로를 통하여 소득이 확정적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직장조합의 경우, 조합 간의 기술효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메타효율에서는 직장파 단체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지만 메타프런티어를 선도하는 것은 단체조합이다. 그러나 단체에서도 우수한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이 공존하고 있어서 오히려 기술효율은 가장 낮았다(강상목과 정수임 2020).

박교순과 심준섭(2017)은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반복된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책임성의 확보가 미흡한 점과 적절한 외부통제 장치가 미미된 점을 들어, 지역 금융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민주적 내부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전국의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조합원의 참여는 신협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책임성의 증진은 신협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교순과 심준섭 2017).

구체적으로, 신협에 대한 참여는 신협의 법적, 경제적, 윤리적, 재량적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교순과 심준섭 2017). 또한 신협의 책임성 구성 요소들이 신협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신협의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 강화 노력들은 조합원의 신협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박교순과 심준섭 2017).

박정희(2017)는 국내 신용협동조합 재무자료의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본적정성 규제가 협

동조합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지역신협의 반기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박정희 2017).

첫째, 자본규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신협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증가시켰고 대출이 증가할 때 순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규제가 대출확장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박정희 2017).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신협의 순자본비율과 은행 등에 적용되는 BIS자기자본비율의 산출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박정희 2017). 신협의 설립목적이 주로 대출영업을 통해 달성되고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매우 낮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자산규모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박정희 2017).

둘째, 자본규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신협에서 수수료 영업증가율이 크게 나타났고 수수료영업의 변화는 순이익의 변화와는 무관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순이익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약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수료영업 비중을 늘릴 경우 순이익에 유의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정희 2017).

셋째, 자본규제 압박이 큰 신협의 유가증권 영업 증가율이 더 작았고 유가증권 영업의 변화는 수수료영업과 마찬가지로 그 절대비중이 낮기 때문에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 실제 자산이 소요되는 유가증권영업과 대출영업을 동반 확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았다(박정희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정환(2018)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여신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654개 지역신협의 재무정보를 토대로 2단계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현정환 2018). 분석결과, 통상적인 대출성장률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성장은 2~4년의 시차를 두고 부실대출증가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정환 2018). 과도한 대출확대는 순이자마진으로 측정된 수익성을 단기적으로 개선시키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실대출 확대로 이어져 결국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현정환 2018). 반면, 정상적인 수준의 대출성장은 여신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현정환 2018). 아울러 지역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을수록 해당 지역내영업 중인 신협의 부실대출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신협의 여신건전성은 개별

신협이 영업 뿐 아니라 해당 영업지역의 거시경제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현정환 2018).

Park et al.(2017)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기반인 조합원의 특별한 관계, 즉 공동유대(지역·단체·직장)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에 의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15년 말 정상 영업 중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7,445개 신협-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들은 재량성이 큰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사장은 초임기간(4년) 중 그 다음의 선거를 의식하여 연임 기간(4년)에 비해, 그리고 초임기간 중 마지막 연도는 초임 또는 연임기간의 다른 연도에 비해, 이익조정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ark et al. 2017).

강성무와 김형준(2018)은 동일 지역, 직장,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신협은 고객이 곧 소유자가 되는 협동조합기업으로서 고객이 단순한 거래자 관계가 아니라 신협에 소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신협의 조직적인 특성은 고객과의 관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이에 이들은 관계마케팅의 주요 변수인 관계혜택, 고객만족, 장기적 관계지향성을 이용하여 신협에서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구체적으로 관계혜택을 확산적 혜택, 사회적 혜택, 특별대우 혜택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고객만족과 장기적 관계지향성과의 인과적 모델을 구조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신협 고객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총 360부를 회수하여 이중 통계에 활용하기 어려운 14부를 제외하고 346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연구결과, 첫째, 확산적 혜택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둘째, 사회적 혜택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객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셋째, 특별대우 혜택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고객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넷째, 고객만족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신탁은 고객에게 혁신적 혜택을 제공하여 신뢰감과 혁신감을 들게 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밀감과 우정의 관계를 구축하며, 특별대우 혜택을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고객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객만족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탁과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강성무와 김형준 2018).

김태훈 등(2020)은 금융기관의 안정성, 건정성, 효율성이 강조되는 기조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변화와 여신을 중심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변화와 인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DEA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건정성과 효율성에는 좋은 영향을 끼쳤으나 지역과 깊게 연계하여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김태훈 등 2020).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안정성 이론, 즉 투자와 소비의 시장에 대한 안정적 공급은 경기의 불안정성을 억제시킨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인천의 경제현황과 인천의 서민금융기관의 대출패턴을 살펴본 결과, 금융패턴의 변화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불안정한 경제는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태훈 등 2020).

효율성의 증가에 따른 대출패턴의 경기순응성 증가는 지역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의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서민금융기관에 낮은 지원과 획일화된 금융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규제완화와 불황시기의 금융지원 마련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김태훈 등 2020).

신용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1960년도 설립된 공익적 성격을 지닌 특수법인인 동시에 비영리법인이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그 동안 정부는 신탁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중소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탁이 적용받는 법인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개정 이후 신탁 등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항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이에 박성욱과 신충휴(2017)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당기순이익과세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신탁에 대한 과세현황을 들어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항목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시행령에 세무조정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체계에 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에서 정한 세무조정 항목과는 법률체 계 및 성격 자체가 다르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으로 상 향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둘째,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추인되는 유보금액보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 효과가 소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등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셋째,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신탁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공익적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신탁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기 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박성욱과 신충휴 2017).

넷째, 신탁·새마을금고에서만 법인세의 감면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 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차별적 과세방식에 문제가 있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유사 금융협동조합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소재지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신탁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마지막으로,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문제이다. 신탁이 설립된 세계 101개 국가 중 미국 등 70개국의 나라에서 신탁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박성욱 과 신충휴 2017).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외국처럼 신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다만, 이때에는 조합원과 비 조합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구분하여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 세 면제,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 을 취해야 할 것이다(박성욱과 신충휴 2017).

이를 확장하여 박성욱과 김성태(2021)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중심

으로 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당기 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박성욱과 김성태 2021).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박성욱과 김성태 2021).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박성욱과 김성태 2021). 분석결과,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박성욱과 김성태 2021). 또한,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한바,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박성욱과 김성태 2021).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들에서는 신탁이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조택과 배용수 2009; 주선미 2011; 조정은 2012). 그러나 신탁운동이 금융업무에 치우치다 보니 이념의 약화, 민주적 관리능력의 약화, 각종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형식적인 추진과 내용의 단순성으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환영 1991). 최진배(2009)는 최근 들어 신탁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에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지역신탁 내부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으며, 지역신탁 스스로도 자신을 서민금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다(김명록과 최진배 2016). 지역신탁 스스로도 공신력이 낮고,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능력도 취약하여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김명록과 최진배 2016). 이는 신용협동조합도 금융기관에 속해 있으며, 그 존속을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강만수 등 2015). 그렇지만 지역신탁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역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써 직접적으로 수익성을 주된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탁이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우위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익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구불예금과 조합원 출자금의 평균잔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요구불예금은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결제성요금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저금리 결제성예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성예금은 정기예금 등의 저축성예금과는 달리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변동 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인 예대마진이 가능하

여 은행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전봉결과 이동규 2014).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지급결제수수료부문 및 결제성예금과 관련된 예대부문의 수지로 구성되는데 지급결제관련 수수료는 은행의 전체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제성요금은 금융기관의 핵심요금으로 평가되고 있다(전봉결과 이동규 2014).

요구불예금은 대표적인 저원가성 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성과지표로써 핵심요금으로 평가된다. 금융환경이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고 자금조달보다 자산운용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핵심예금의 중요성은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욱 강조되어 핵심예금으로써 요구불예금을 확보하려는 금융기관의 경쟁과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협 예금은 크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과 일정기간 동안 금액을 묶어두는 기한부예금(fixed deposit)으로 분류한다. 신협의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불어나예탁금, 사장님더드림예탁금, 드리밍박스 등 9가지가 있으며, 법인 조합원은 보통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불어나예탁금 등 4가지의 요구불예금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 조합원은 기업자유예탁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신협 출자금은 조합원이 신협에 출자한 자본금의 납입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원이 출자금 계정을 해지하더라도 다음 정기총회 이전까지는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출자금이 조합원의 충성심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진배 2013). 신협은 이를 운용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배당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신협의 출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소비자(공급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높은 배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⁵⁾. 따라서 신협은 이러한 출자금 확보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할 자금운용의 기

5) 이에 대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보다 훨씬 낫네, 신협 착한 배당 눈길” (출처: 매일경제 2020. 05. 19.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

“고금리에 먼세까지...상호금융 출자금통장 아세요?” (출처: 헤럴드경제 2021. 02. 23. 원문보기: <http://mbiz.heraldcorp.com/view>)

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진배(2009)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출자금을 확충하여 조합의 위험수취능력을 제고하면서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합원 출자금은 조합원이 자산축적 또는 증식을 위해 조합에 예금된 자본금으로 출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합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며(문정모 1988), 출자금 비율의 하락이 조합원의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민주적 관리의식이 약화된 것을 반영할 수 있다(전철환 1990).

신협의 조합원은 개인과 법인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법인은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 사업자등록증, 통장,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신협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으며, 조합이 창출한 이익도 공유하게 된다. 신협에서의 법인 조합원은 공동유대에 속한 근거리 소재의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하여 신협과의 금융적 연계관계 정도와 비중이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조합원은 근거리 소재의 지점을 통하여 입출금의 편의성,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예적금과의 연계성, 대출약정에 따른 부대거래를 빈번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카드, VAN 서비스 등 기타 신협의 부대적인 금융활동과 연계가 용이하므로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론된다.

신협은 조합 가입 3개월 이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요구불예금·기한부예금·대출금 등의 3개월 평균잔액, 자동이체·전자금융 등의 3개월 누적 이용건수, 3개월 납입 생명공제료, 체크카드 3개월 평균 결제금액 등의 거래를 통하여 신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거래전속화를 통한 소매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만족도를 제고하며, 조합의 조합원 기반 구축 및 수익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참조합원(으뜸이, 믿음이, 도움이 등)으로 선정한다.

조합원 중에서 참조합원은 이미 상위등급 자격을 갖춘 조합원인데 그 중 최상위 등급인 ‘으뜸이’인 참조합원은 주로 예금잔고에 의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으뜸이 조합원의 거래의 주된 목적이 대출거래보다는 예금거래인 경우가 많고 요구불예금 가운데서 단순히 보통예탁금을 위주로 거래할 경우가

많은 것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으뜸이 조합원은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합원의 가입이 법인인 경우와 개인(참조합원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으뜸이”)인 경우 수익성의 대응변수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1. 법인 조합원은 요구불예금에 양(+)의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1-2. 법인 조합원은 출자금에 양(+)의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2-1. 상위등급 조합원은 요구불예금에 양(+)의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2-2. 상위등급 조합원은 출자금에 양(+)의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의 설계

1. 가설검증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신탁거래의 주된 목적이 예금거래인 경우와 주된 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경우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가설 1의 검증모형>

$$DEPOSIT = \alpha_1 FIRM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quad \text{식(1)}$$

$$INVESTMENT = \alpha_1 FIRM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quad \text{식(2)}$$

<가설 2의 검증모형>

$$DEPOSIT = \alpha_1 HIGH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quad \text{식(3)}$$

$$INVESTMENT = \alpha_1 HIGH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quad \text{식(4)}$$

<종속변수>

DEPOSIT: 3개월 요구불예금 평잔에 자연로그를 취함 값,
 INVESTMENT: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설명변수>

FIRM: 조합원이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HIGH: 참조조합원 등급이 '으뜸이'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통제변수>

WHY: 첫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WHAT: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ACE: 주거래 방식이 대면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SURANCE: 신협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EFIN: 전자거래 이용횟수,
 CARD: 카드결제 금액이 있는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VAN: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NG: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
 MALE: 남성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ε : 잔차항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협에서의 수익성 대용변수로 인정되는 3개월 조합원 요구불예금(DEPOSIT)과 출자금(INVESTMENT) 평균잔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구불예금은 신협에서 공시하는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불어나예탁금, 사장님더드림예탁금, 드림박스 등 조합원이 거래하는 9개 계정의 합계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는 주변수는 법인 조합원(FIRM)인 경우이다. 법인 조합원은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횟수도 빈번하여 신협 지점과 금융거래 정도와 비중이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더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DEPOSIT와 INVESTMENT에 유의한 양(+)의 부호로 회귀계수가 도출된다면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될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는 주된 변수는 조합원이 상위등급에 속하는 '으뜸이'에 더미변수를 취한 HIGH이다. 참조조합원 중 최상위 등급인 으뜸이 조합원은 주로 조합원 유지기간과 예금잔고에 의하여 그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HIGH

가 DEPOSIT와 INVESTMENT에 유의한 양(+의 부호)로 회귀계수가 추정된다면 가설 2-1과 가설 2-2는 채택될 것이다.

한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가장 먼저 고려할 변수는 거래목적이 예금거래(WHY)인 경우로 이는 조합원의 거래를 예금거래와 대출거래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 더미변수 값을 부여하였다.

예금거래는 근거리 소재의 지점을 통하여 보통예금의 입출금의 편의성이 있고, 예적금으로 연계뿐만 아니라 기타 신탁의 부대적인 금융활동과 연계가 용이하므로,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WHY는 DEPOSIT와 INVESTMENT에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통제해야할 변수는 요구불예금 가운데 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WHAT)인 경우이다. WHAT은 단순히 보통예탁을 위주로 거래할 경우에만 더미변수 1값을 부여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계정을 통하여 입출금이 자유롭고 저축금액의 한도가 없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WHAT가 DEPOSIT와 INVESTMENT에 유의한 양(+의 부호)를 예상한다.

FACE는 대면거래에 해당하는 변수로, 대면을 통한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마케팅에 노출되는 것이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종속변수에 양(+의 부호)를 기대한다. INSURANCE는 신탁공제 가입여부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신탁공제 가입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만일 창구직원에 의한 인적판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적극적인 판매촉진전략⁶⁾이 구사된다면 조합원은 신탁의 공제상품을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인식을 갖게 되므로 종속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FIN은 전자거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변수로, 전봉걸과 이동규(2014)에 의하면,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확산이 해당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인터넷뱅킹의 확산이 결제성예금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조합원의 전자금융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신탁 친밀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종속변수에 양(+의 부호)를 예상한다.

CARD는 카드결제 금액의 유무에 따른 변수로, 만일 신탁의 카드결제와 그 금액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신탁의 거래 잔고에 남아있게 된다면 종속변수에 양(+)

6)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를 Pull 전략과 대비하여 Push 전략이라고 한다.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VAN은 신협이 카드 단말기 대여 서비스 가입여부 변수로 신협결제계좌(통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조회 및 전표관리를 하는 조합원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포함하였다.

이 외에 조합원 가입기간(LONG), 조합원의 성별(MALE)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제3절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광주·전남 소재 25개 지역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8,289명의 조합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신협은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지역신협이 조합원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넓다고 볼 수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신협을 대상으로 하였다.

7) 우리나라 신협의 공동유대는 지역, 직장, 단체로 구분되는데 이중 지역단위를 공동유대로 하는 지역신협이 전체 신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조정은 2012), 2020년 기준으로 전체 879개 신협 중 670개가 지역신협으로 그 비중이 76.2%에 이르고 있다(<표 4> 참조).

<표 6> 표본의 구성

| 광주 | | | 전남 | | |
|--|---------|-------|--------|---------|-------|
| 조합명 | 조합원 (명) | 비율(%) | 조합명 | 조합원 (명) | 비율(%) |
| 광주문화 | 418 | 11.7 | 목포 | 890 | 18.9 |
| 광주원광 | 238 | 6.6 | 나주 | 759 | 16.1 |
| 광주신우 | 500 | 14.0 | 꿀벌 | 588 | 12.5 |
| 두암 | 440 | 12.3 | 순천 | 304 | 6.5 |
| 비아 | 130 | 3.6 | 순천중앙 | 818 | 17.4 |
| 광주중앙 | 250 | 7.0 | 강진 | 179 | 3.8 |
| 남광주 | 670 | 18.7 | 별교 | 244 | 5.2 |
| 우산 | 261 | 7.3 | 완도제일 | 230 | 4.9 |
| 빛고을 | 181 | 5.1 | 장성 | 240 | 5.1 |
| 광주하남 | 128 | 3.6 | 무안 | 100 | 2.1 |
| 샘 | 52 | 1.5 | 여천 | 99 | 2.1 |
| 서광 | 311 | 8.7 | 완도 | 228 | 4.8 |
| | | | 영암 | 31 | 0.7 |
| 12개 조합 | 3,579명 | 100% | 13개 조합 | 4,710명 | 100% |
| <p>총표본 도수(조합원 수): 25개 조합 8,28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12개 신탁 3,579명 - 전남 13개 신탁 4,710명 - 제거: 582개(요구불예금 없음 64개, 출자금 3개월 평잔 없음 518개) <p>최종표본: 7,707개</p> | | | | |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n=7,707)

| 구분 | 평균 | 도수 | 중위수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DEPOSIT | 15.839 | 해당없음 | 16.108 | 1.684 | 0.000 | 22.599 |
| INVESTMENT | 14.034 | 해당없음 | 14.363 | 1.853 | 6.974 | 19.644 |
| FIRM | 0.041 | 317 | 0.000 | 0.199 | 0.000 | 1.000 |
| HIGH | 0.077 | 594 | 0.000 | 0.267 | 0.000 | 1.000 |
| WHY | 0.761 | 5,864 | 1.000 | 0.427 | 0.000 | 1.000 |
| WHAT | 0.054 | 416 | 0.000 | 0.226 | 0.000 | 1.000 |
| FACE | 0.613 | 4,724 | 1.000 | 0.487 | 0.000 | 1.000 |
| INSURANCE | 0.281 | 2,162 | 0.000 | 0.449 | 0.000 | 1.000 |
| EFIN | 34.976 | 해당없음 | 8.000 | 65.306 | 0.000 | 1,375 |
| CARD | 0.356 | 2,742 | 0.000 | 0.479 | 0.000 | 1.000 |
| VAN | 0.165 | 1,275 | 0.000 | 0.372 | 0.000 | 1.000 |
| LONG | 13.565 | 해당없음 | 11.900 | 9.433 | 0.000 | 48.500 |
| MALE | 0.443 | 3,415 | 0.000 | 0.498 | 0.000 | 1.000 |

<변수의 정의>

- DEPOSIT: 3개월 요구불예금 평잔에 자연로그를 취함 값,
- INVESTMENT: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FIRM: 조합원이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HIGH: 참조조합원 등급이 '으뜸이'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WHY: 첫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WHAT: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FACE: 주거래 방식이 대면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INSURANCE: 신탁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EFIN: 전자거래 이용횟수,
- CARD: 카드결제 금액이 있는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VAN: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LONG: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
- MALE: 남성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변수는 대부분 더미변수로 처리되었다.

수익성의 대용변수로 종속변수인 DEPOSIT의 평균은 15.839로 이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개별 조합원의 평균 요구불예금이 약 22,700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위수는 16.108로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요구불예금의 평균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NVESTMENT의 평균은 14.034로 개별 조합원의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이 약 4,118천원으로 나타나 광주·전남 소재 25개 지역신협 조합원들이 1인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금을 내고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⁸⁾. 주 검증변수인 FIRM의 평균은 0.041로 연구대상 조합원 전체 7,707 표본 중 4.1%에 해당하는 317건이 법인 조합원으로 나타났다. HIGH의 평균은 0.077로 연구대상 조합원 전체 7,707 표본 중 7.7%에 해당하는 594건이 참조조합원 중 최상위 등급인 으뜸이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WHY와 WHAT의 평균은 각각 0.761, 0.054로 거래의 주된 목적이 예금거래인 경우와 주된 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경우가 전체 7,707 표본 중에서 5,864건, 416건에 해당되며, 전반적으로 예금거래의 비중이 많지만 보통예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FACE의 평균은 0.613으로 조합원 거래가 전반적으로 창구를 통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인다. INSURANCE의 평균은 0.281로 신협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효가 28.1%를 차지하였다. EFIN은 연속변수로 전자금융 이용횟수를 나타내는데, 최대 이용건수와 최소 이용건수의 범위와 표준편차가 매우 심하며 심지어 전자금융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건수가 1,100여건을 상회하였다. CARD의 평균을 통하여 약 35.6%에 해당하는 2,162명의 조합원이 신협을 통하여 카드결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VAN의 평균으로 연구대상 조합원 전체 7,707 표본 중 16.5%에 해당하는 1,275명이 신협의 카드 단말기 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ONG의 평균으로 2021년 6월말 기준 광주·전남 소재 25개 지역신협 조합원으로서 신협과 거래한 기간이 13년을 넘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남성조합원(MALE)이 44.3%인 3,415명으로 관측되었다.

8) 2020년 기준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66%로 조합원이 1년간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약 26만 6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년 만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인 1.16%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제2절 단변량분석

1. 상관분석

<표 8> 상관분석 결과 (n=7,707)

| | (1)DEP OSIT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2) INVESTMENT | -0.07 0.00 | 1.00 | | | | | | | | | | |
| (3) FIRM | 0.15 0.00 | -0.13 0.00 | 1.00 | | | | | | | | | |
| (4) HIGH | 0.02 0.10 | 0.15 0.00 | 0.00 0.93 | 1.00 | | | | | | | | |
| (5) WHY | 0.22 0.00 | 0.04 0.00 | -0.15 0.00 | -0.14 0.00 | 1.00 | | | | | | | |
| (6) WHAT | 0.11 0.00 | -0.08 0.00 | 0.49 0.00 | 0.00 0.70 | -0.08 0.00 | 1.00 | | | | | | |
| (7) FACE | 0.11 0.00 | 0.05 0.00 | -0.03 0.02 | -0.01 0.25 | 0.01 0.26 | -0.02 0.06 | 1.00 | | | | | |
| (8) INSURANCE | -0.11 0.00 | 0.16 0.00 | -0.08 0.00 | 0.22 0.00 | -0.06 0.00 | -0.02 0.19 | -0.04 0.00 | 1.00 | | | | |
| (9) EFIN | 0.02 0.04 | 0.03 0.02 | 0.03 0.01 | 0.12 0.00 | -0.08 0.00 | 0.03 0.03 | -0.06 0.00 | 0.09 0.00 | 1.00 | | | |
| (10) CARD | -0.09 0.00 | -0.04 0.00 | -0.03 0.01 | 0.14 0.00 | -0.01 0.53 | -0.02 0.06 | -0.06 0.00 | 0.12 0.00 | 0.13 0.00 | 1.00 | | |
| (11) VAN | -0.04 0.00 | 0.13 0.00 | -0.07 0.00 | 0.02 0.07 | -0.01 0.28 | 0.01 0.40 | 0.02 0.08 | 0.08 0.00 | 0.26 0.00 | 0.04 0.00 | 1.00 | |
| (12) LONG | -0.04 0.00 | 0.31 0.00 | -0.17 0.00 | 0.07 0.00 | 0.15 0.00 | -0.06 0.00 | 0.14 0.00 | 0.15 0.00 | -0.08 0.00 | -0.05 0.00 | 0.07 0.00 | 1.00 |
| (13) MALE | 0.07 0.00 | -0.04 0.00 | -0.23 0.00 | -0.02 0.05 | -0.10 0.00 | 0.11 0.00 | -0.02 0.18 | -0.00 0.93 | -0.00 0.96 | -0.01 0.39 | -0.04 0.00 | 0.07 0.00 |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7>의 기술통계량 참조

주2) 각 셀의 위는 상관계수, 아래는 유의수준을 나타냄(양측 검증)

<표 8>은 가설검증에 활용된 주요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이다. 변수 별 각 셀의 위쪽은 상관계수이며 아래쪽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우선, DEPOSIT와 INVESTMENT의 상관계수는 - 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요구불예금이 많을수록(적을수록)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이 적다(많다)는 반비례 관계를 의미하며, 주 검증변수를 포함한 제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 검증변수인 FIRM과 DEPOSIT의 상관계수는 0.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법인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RM과 INVESTMENT의 상관계수는 -0.13으로 출자금 평균잔액과는 음(-) 상관성으로 나타나 법인 조합원이 많을 경우 출자금 평균잔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HIGH와 DEPOSIT의 상관계수는 0.02로 통계적으로 10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상위등급 조합원이 많을수록 요구불예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관성 설명 강도는 법인 조합원에 비하여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GH와 INVESTMENT의 상관계수는 0.1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상위등급 조합원이 많을 경우 출자금 평균잔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 WHY와 WHAT은 DEPOSIT과 각각 0.22, 0.11의 상관계수로 나타나 신탁거래의 주된 목적이 예금거래인 경우와 주된 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경우 요구불예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WHY와 INVESTMENT의 상관계수는 0.04로 예금거래는 출자금 평균잔액에 긍정적인 설명관계가 있는 반면, WHAT과 INVESTMENT의 상관계수는 -0.08로 출자금 평균잔액과는 음(-) 상관성으로 나타나 보통예탁금과 조합원 출자금 평균잔액이 서로 상반된 행태를 보였다. 기타 DEPOSIT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인 통제변수는 FACE, EFIN, MALE 등으로 대면거래, 전자금융 이용 횟수, 남성 조합원 등이 요구불예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NSURANCE, CARD, VAN, LONG 등은 DEPOSIT에 유의한 음(-)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공제가입, 카드결제, 카드단말기 서비스, 장기 조합원 등은 요구불예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INVESTMENT에 양(+)의 상관계수로 관측된 변수는 FACE, INSURANCE, EFIN, VAN, LONG 등으로, 대면거래, 공제가입, 전자금융의 이용빈도,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기간 등이 출자금의 평균잔액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ARD, MALE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로 나타나 카드결제, 남성 조합원 등은 출자금 평균잔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평균차이분석

<표 9> 평균차이분석 결과

패널 A. 법인 조합원 여부에 따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차이

| 구분 | FIRM (n=317) | | non-FIRM (n=7,390) | | 검정통계량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차이 | t통계량 | p값 |
| DEPOSIT | 17.030 | 1.587 | 15.788 | 1.669 | 1.242 | 13.620 *** | 0.000 |
| INVESTMENT | 12.913 | 2.221 | 14.082 | 1.820 | -1.169 | -9.239 *** | 0.000 |

패널 B. 상위등급 조합원 여부에 따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차이

| 구분 | HIGH (n=594) | | non-HIGH (n=7,113) | | 검정통계량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차이 | t통계량 | p값 |
| DEPOSIT | 15.948 | 1.462 | 15.830 | 1.701 | 0.118 | 1.863 * | 0.063 |
| INVESTMENT | 14.987 | 1.209 | 13.954 | 1.875 | 1.033 | 19.005 *** | 0.000 |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7>의 기술통계량 참조

주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9>는 2021년 6월말 기준 광주·전남 소재 25개 지역신협 조합원 7,707명을 대상으로 법인 조합원과 상위등급 개인 조합원 여부로 집단구분하여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9).

패널 A에서 DEPOSIT에 대한 FIRM과 non-FIRM의 평균은 각각 17.030, 15.788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13.620$)를 보였다. 또한 INVESTMENT에 대한 FIRM과 non-FIRM의 평균은 각각 12.913, 14.082로 FIRM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t통계량은 -9.239 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법인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조합원

9) 종속변수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 이외의 대부분 변수가 더미변수로 처리되어 이들 변수는 모수통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들 변수는 비모수통계에 해당하므로), 이들 변수에 대하여 모수통계에 의한 평균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에 비하여 더 높은 반면, 출자금 평균잔액은 더 낮은 비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패널 B에서 DEPOSIT에 대한 HIGH와 non-HIGH의 평균은 각각 15.948, 15.830으로 HIGH의 평균이 더 높게 나왔으며 평균차이 0.118에 대한 t통계량은 1.863으로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위등급 조합원의 요구불예금의 평균이 낮은 등급 조합원에 비하여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INVESTMENT에 대한 HIGH와 non-HIGH의 평균은 각각 14.987, 13.954로 HIGH의 평균이 1.033만큼 더 높게 나타났으며, t통계량도 19.005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상위등급 조합원의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위등급 조합원이 입출금이나 예적금 거래, 공과금 처리 등 일반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출자금에 의한 배당에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절 다중회귀분석

제2절에서의 단변량분석은 인과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대응변수로 설정한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에 미치는 설명력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 검증변수인 예금거래와 보통예탁금에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인 경우(WHY), 주거래 과목이 보통예탁금(WHAT)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면거래 여부(FACE), 신협공제 가입여부(INSURANCE), 전자거래 이용횟수(EFIN), 카드결제 여부(CARD), VAN 가입여부(VAN), 조합원 가입기간(LONG), 남성조합원 여부(MALE)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법인 조합원 여부(FIRM), 상위등급 참조조합원 여부(HIGH)가 요구불예금(DEPOSIT)과 출자금(INVESTMENT)의 평균잔액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반에 걸쳐 모형적합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에 대한 F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하여 검증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변수들이 대부분 더미변수로 처리되어 변수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본 연구는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각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조사한 결과, 최소 1.029에서 최대 1.42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우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1. 가설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1-1의 검증모형

$$DEPOSIT = \alpha_1 FIRM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표 10-1> 법인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n=7,707)

| 구분 | 종속변수 : DEPOSIT | | |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p-value |
| FIRM | 1.069 | 0.109 | 0.126 | 9.826 *** | 0.000 |
| WHY | 1.022 | 0.044 | 0.259 | 23.468 *** | 0.000 |
| WHAT | 0.420 | 0.092 | 0.056 | 4.588 *** | 0.000 |
| FACE | 0.408 | 0.038 | 0.118 | 10.862 *** | 0.000 |
| INSURANCE | -0.248 | 0.041 | -0.066 | -5.984 *** | 0.000 |
| EFIN | 0.002 | 0.000 | 0.065 | 5.771 *** | 0.000 |
| CARD | -0.270 | 0.038 | -0.077 | -7.038 *** | 0.000 |
| VAN | -0.133 | 0.051 | -0.029 | -2.615 *** | 0.009 |
| LONG | -0.011 | 0.002 | -0.059 | -5.229 *** | 0.000 |
| MALE | 0.215 | 0.038 | 0.064 | 5.735 *** | 0.000 |
| 수정 R ² (F값) | 0.117 (103.100)*** | | | | |

<변수의 정의>

DEPOSIT: 3개월 요구불예금 평잔에 자연로그를 취합 값,

FIRM: 조합원이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WHY: 첫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WHAT: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ACE: 주거래 방식이 대면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SURANCE: 신탁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EFIN: 전자거래 이용횟수,

10). 독립변수 상호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충돌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VIF 값이 10 이상으로 관측되면 독립변수들 상호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CARD: 카드결제 금액이 있는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VAN: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NG: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
 MALE: 남성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0-1>에서 주 관심변수 FIRM이 종속변수 DEPOSIT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1.069 (0.126)이고 이에 대한 t통계량은 9.826으로 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조합원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요구불예금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며,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2020년 말 기준 광주·전남 신협 이용자수 1,287천명 가운데 개인 이용자수는 1,264천명(98.2%)이고, 법인 이용자수는 17천명(1.3%)이다(신협연구소 김솔민 2021. 8). 이처럼 개인 이용자수가 법인 이용자수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조합원이 개인 조합원보다 요구불예금에 강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개인 조합원은 가계 생활자금 거래 용도로 요구불예금 계좌를 이용하고 법인 조합원은 기업의 운용자금 거래 용도로 주된 이용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가계경제와 기업경제에 있어서 규모의 차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출의 경우 개인 조합원은 본인 소유의 주택(1주택 소유자 가정)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대출 형태로 소규모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인 조합원의 경우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고 담보대출만 가능하므로 보유중이거나 건설중에 있는 기업의 토지, 건물, 공장, 창고 등 비교적 담보가치가 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규모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인 조합원의 대규모 대출은 개인 조합원보다 차입금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요구불예금에 유보시켜야 할 금액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제변수에서 WHY와 WHAT은 DEPOSIT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로 추정되었다. 이는 거래목적이 예금 거래인 경우와 주거래 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경우 요구불예금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실제 조사결과 요구불예금 가운데 주거래 과목으로 이용하는 요구불예금 과목의 비중 크기는 자립예탁금 76%, 불어나예탁금 8%, 알찬자유예탁금 7%, 보통예탁금 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 종속변수 DEPOSIT에 양(+)의 설명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FACE,

EFIN, MALE 등으로 대면거래, 전자금융 이용횟수, 그리고 남성 조합원의 경우 요구불예금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NSURANCE, CARD, VAN, LONG 등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어 공제가입, 카드결제 이용 조합원,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 조합원, 조합원 가입기간 등은 요구불예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의 검증모형

$$INVESTMENT = \alpha_1 FIRM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표 10-2> 법인 조합원이 출자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n=7,707)

| 구 분 | 종속변수 : INVESTMENT | | |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p-value |
| FIRM | -0.340 | 0.119 | -0.036 | -2.861 *** | 0.004 |
| WHY | -0.011 | 0.048 | -0.002 | -0.223 | 0.823 |
| WHAT | -0.319 | 0.100 | -0.039 | -3.191 *** | 0.001 |
| FACE | 0.044 | 0.041 | 0.012 | 1.067 | 0.286 |
| INSURANCE | 0.460 | 0.045 | 0.112 | 10.181 *** | 0.000 |
| EFIN | 0.001 | 0.000 | 0.025 | 2.201 ** | 0.028 |
| CARD | -0.165 | 0.042 | -0.043 | -3.928 *** | 0.000 |
| VAN | 0.448 | 0.055 | 0.090 | 8.083 *** | 0.000 |
| LONG | 0.056 | 0.002 | 0.283 | 25.072 *** | 0.000 |
| MALE | -0.160 | 0.041 | -0.043 | -3.888 *** | 0.000 |
| 수정 R ² (F값) | 0.129 (114.813)*** | | | | |

<변수의 정의>

- INVESTMENT: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FIRM: 조합원이 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WHY: 첫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WHAT: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FACE: 주거래 방식이 대면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INSURANCE: 신탁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EFIN: 전자거래 이용횟수,
- CARD: 카드결제 금액이 있는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VAN: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LONG: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
- MALE: 남성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0-2>에서 주 관심변수 FIRM이 종속변수 INVESTMENT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340 (-0.036), 이에 대한 t통계량은 -2.861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설명력이 도출되었다. 이는 법인 조합원이 출자금 평균잔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인 조합원들이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배당금에 의한 자산증식을 피하기보다는 일상거래의 편의성에 의존하여 여유자금을 보통예탁하는 유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가설 1-2를 유의하게 기각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에서 INSURANCE, EFIN, VAN, LONG 등이 종속변수 INVESTMENT에 양(+)의 설명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법인 조합원이 신협공제에 가입하였거나, 전자금융 이용횟수가 많은 조합원, 카드단말기 서비스 이용 조합원, 조합원 가입기간 등이 조합원 출자금 평균잔액을 견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기간(LONG)이 길수록 출자금 평균잔액이 더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WHAT, CARD, MALE 등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어 주 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에 비중을 두거나 카드결제 이용 조합원, 남성 조합원 등은 출자금 평균잔액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2-1의 검증모형

$$DEPOSIT = \alpha_1 HIGH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표 11-1> 상위등급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n=7,707)

| 구 분 | 종속변수 : DEPOSIT | | |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p-value |
| HIGH | 0.537 | 0.071 | 0.085 | 7.572 *** | 0.000 |
| WHY | 1.025 | 0.044 | 0.260 | 23.377 *** | 0.000 |
| WHAT | 0.852 | 0.081 | 0.114 | 10.535 *** | 0.000 |
| FACE | 0.410 | 0.038 | 0.119 | 10.898 *** | 0.000 |
| INSURANCE | -0.330 | 0.042 | -0.088 | -7.821 *** | 0.000 |
| EFIN | 0.002 | 0.000 | 0.060 | 5.307 *** | 0.000 |
| CARD | -0.310 | 0.039 | -0.088 | -8.018 *** | 0.000 |
| VAN | -0.155 | 0.051 | -0.034 | -3.063 *** | 0.002 |
| LONG | -0.015 | 0.002 | -0.083 | -7.307 *** | 0.000 |
| MALE | 0.288 | 0.037 | 0.085 | 7.798 *** | 0.000 |
| 수정 R ² (F값) | 0.113 (98.707)*** | | | | |

<변수의 정의>

- DEPOSIT: 3개월 요구불예금 평잔에 자연로그를 취합 값,
- HIGH: 참조조합원 등급이 '으뜸이'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WHY: 첫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WHAT: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FACE: 주거래 방식이 대면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INSURANCE: 신탁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EFIN: 전자거래 이용횟수,
- CARD: 카드결제 금액이 있는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VAN: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LONG: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
- MALE: 남성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1-1>에서 주 관심변수 HIGH가 종속변수 DEPOSIT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37 (0.085)이고 이에 대한 t통계량은 7.532로 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개인 조합원(상위등급인 으뜸이 참조조합원)인 경우 요구불예금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며,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이들 으뜸이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조합원에 비하여 예금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가입기간을 유지함으로써 일상적인 입출금 거래, 공과금 납부, 자

동이체를 위한 잔액 유지, 예적금 거래, 대출금 이자납입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요구불예금 잔고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어 기한부예금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낮아지면서 만기가 된 기한부예금이 재예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요구불예금에 자금이 유입된 데에도 원인이 있으며, 각 신탁들이 핵심예금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이라고 볼 수 있는 보통예탁금 보다는 고원가성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알찬자유예탁금 등을 통하여 요구불예금을 증가시킨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국 신탁의 요구불예금 9개 계정의 가중평균금리는 0.38%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보통예탁금 가중평균금리는 0.14%, 알찬자유예탁금 가중평균금리는 1.25%로써 고원가성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알찬자유예탁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약91%)을 차지하였다(신탁 이슈보고서 2021-01호).

통제변수에서는 <표 10-1>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WHY와 WHAT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각 0.260, 0.114로 매우 유의한 양(+)의 설명력으로 나타나 신탁 조합원의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인 경우와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경우 둘 다 요구불예금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요구불예금을 구성하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외 통제변수의 표준화 계수를 통하여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FACE가 DEPOSIT에 반영된 회귀계수가 0.119 (t통계량 10.898)로 나타나 대면거래가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금융 이용횟수(EFIN)와 남성 조합원(MALE)도 요구불예금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INSURANCE, CARD, VAN, LONG 등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어 공제가입, 카드결제, 카드단말기 서비스, 조합원 가입기간 등은 요구불예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탁 거래자 중에서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이 85%,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이 73%, 카드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 64%, VAN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이 64%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가설 2-2의 검증모형

$$INVESTMENT = \alpha_1 HIGH + \alpha_2 WHY + \alpha_3 WHAT + \alpha_4 FACE + \alpha_5 INSURANCE + \alpha_6 EFIN + \alpha_7 CARD + \alpha_8 VAN + \alpha_9 LONG + \alpha_{10} MALE + \epsilon$$

<표 11-2> 상위등급 조합원이 출자금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n=7,707)

| 구 분 | 종속변수 : INVESTMENT | | |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통계량 | p-value |
| HIGH | 0.802 | 0.077 | 0.115 | 10.426 *** | 0.000 |
| WHY | 0.067 | 0.047 | 0.015 | 1.406 | 0.160 |
| WHAT | -0.448 | 0.088 | -0.055 | -5.114 *** | 0.000 |
| FACE | 0.044 | 0.041 | 0.012 | 1.087 | 0.277 |
| INSURANCE | 0.380 | 0.046 | 0.092 | 8.322 *** | 0.000 |
| EFIN | 0.000 | 0.000 | 0.013 | 1.179 | 0.238 |
| CARD | -0.209 | 0.042 | -0.054 | -4.984 *** | 0.000 |
| VAN | 0.474 | 0.055 | 0.095 | 8.633 *** | 0.000 |
| LONG | 0.055 | 0.002 | 0.279 | 25.097 *** | 0.000 |
| MALE | -0.185 | 0.040 | -0.050 | -4.628 *** | 0.000 |
| 수정 R ² (F값) | 0.141 (126.353)*** | | | | |

<변수의 정의>

INVESTMENT: 3개월 출자금 평균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HIGH: 참조조합원 등급이 '으뜸이'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WHY: 첫 거래목적이 예금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WHAT: 주거래과목이 보통예탁금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ACE: 주거래 방식이 대면거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SURANCE: 신탁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EFIN: 전자거래 이용횟수,

CARD: 카드결제 금액이 있는 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VAN: 카드단말기 서비스 가입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ONG: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

MALE: 남성조합원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1-2>에서 주 관심변수 HIGH가 종속변수 INVESTMENT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802 (0.115)로 추정되고 t통계량은 10.42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참조조합원 중 상위등급에 속하는 으뜸이 조합원이 출자금 평균잔액을 유

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설 2-2가 채택되는 결과이며, 으뜸이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조합원에 비하여 일상거래의 편의성에 의존한 거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출자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조합원 충성도를 유지하고 배당금에 의한 자산증식을 의도하는 것을 반증한다.

통제변수에서는 <표 10-2>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통하여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INSURANCE, VAN, LONG이 INVESTMENT에 반영된 회귀계수가 각각 0.092 (t통계량 8.322), 0.095 (t통계량 8.633), 0.279 (t통계량 25.097)로 나타나 공제가입 조합원, 카드 단말기 서비스 가입 조합원, 장기가입 유지 조합원 등이 출자금 평균잔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LONG이 종속변수인 INVESTMENT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 조합원의 가입 기간이 출자금 평균잔액을 견인하는 충성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WHAT은 종속변수 INVESTMENT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설명력으로 나타나 보통예탁금이 요구불예금의 주거래 과목인 경우 출자금 평균잔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카드 결제 이용횟수(CARD) 또한 출자금 평균잔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법인 조합원과 상위등급 조합원이 핵심예금으로 인식되는 요구불예금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동유대 중 법인조합원은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거래규모(금액)가 크고 거래횟수가 빈번하다고 여겨지는데, 근거리 신탁지점을 통하여 편의성을 고려한 입출금 위주의 예금거래가 요구불예금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출자금 평균잔액에 대하여 상위등급 조합원은 강한 설명관계를 보임으로써 조합원 충성도와 배당에 의한 자산증식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나, 법인 조합원은 오히려 출자금 평균잔액과 부정적인 설명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 조합원들의 거래목적이 일상적인 입출금 거래, 대출을 위한 조합원 가입, 여유자금의 일시예탁 등에 치중할 뿐, 출자금 예치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인 조합원이 배당에 의한 자산증식을 의도한다기보다는 일상거래의 편의성에

의존하는 유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의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탁이 본연의 설립취지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탁은 일반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데(김용동 2012), 제1금융권인 은행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우대정책과 금리정책에 편승하여 업무영역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어서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시적인 저금리의 지속과 대형 금융기관의 차별적 금리전략으로 신탁은 예금과 대출금 위주의 단순한 영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자산건전성의 취약 등 어려움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심재포 2010). 신탁은 이미 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실한 수익성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신탁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요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예금(Core Deposits)이란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심예금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CD·금융채권·환매채(RP) 등 다른 조달수단과 비교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는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핵심예금은 신탁의 조달원가를 낮춰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부도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금융기관들은 정기예금 같은 고금리상품이나 특판상품보다는 오히려 핵심예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예대율 규제를 충족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으며, 신탁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예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핵심예금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그 중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단기간 내 핵심예금 규모를 늘릴 수는 있으나 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금융기관의 KPI에 ‘핵심예금유치’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확대할 경우 영업점 직원은 핵심고객 확보에 전력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핵심예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신규고객이 장기고객으로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며 신규고객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핵심예금이 증가하였을지라도 다음 분기가 되면 핵심예금 규모가 원상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융기관의

핵심예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주된 관심은 신협이 “핵심예금으로서 요구불예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의 평균잔액을 증대 혹은 유지하는 것 또한 조합원의 충성도를 결속시킴으로써 유동성의 이탈을 막고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본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협의 출자금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바, 신협은 이들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수용할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충성심은 조합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조합원관계관리(CRM)”를 통해서 형성되고 확보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적합한 차별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 CRM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즉 모든 조합원에게 획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조합원관리 부서는 조합원 가입 권장에 관한 사항,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CRM에 관한 사항, 조합원 참여행사 개발에 관한 사항, 조합원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마케팅기법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조합원정보(DB) 분석 및 정책(상품,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조합원 탈퇴 관리(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합원 기반 강화 및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조합원관리 부서는 조합원관리 활동에 있어서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나 조합원 데이터를 충실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합에 적합한 CRM 활동을 선정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합원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조합원 기반 수익원 창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협중앙회는 각 조합의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우량 조합원을 선별하여 조합의 특성에 적합한 CRM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협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조합원도 중요하지만 법인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효과를 간과해서는 아니되고, 개별 조합원의 공동유대적 충성도 및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한 방편으로 출자금을 확충함으로써 풍족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건설한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을 증진해야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광주·전남 신용협동조합의 참조합원을 대상으로 신탁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법인 조합원과 개인 조합원(상위등급 참조합원)이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공동유대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신탁 25개에서 참조합원 이상 개인 혹은 법인 조합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조합원 8,289명 중 요구불예금이 없는 64명과 3개월 조합원 평균잔액이 없는 518명을 제외한 7,707명을 최종 검증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주된 검증변수는 법인 조합원 317개와 상위등급 으뜸이 조합원 594개 표본이며, 이들 표본에 더미변수를 취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기에 조합원의 거래 목적과 주거과 과목에 따른 예금거래와 보통예탁금, 대면거래 여부, 공제가입 여부, 전자금융 여부, 카드결제 여부, VAN 가입여부, 조합원 유지기간, 성별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 등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변량 상관분석 결과, 법인 조합원과 상위등급 조합원 둘 다 요구불예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로 나타났다. 출자금 평균잔액에서는 법인 조합원이 유의한 음(-) 상관성을 보인 반면, 상위등급의 조합원은 유의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둘째, 단변량 평균차이분석 결과, 법인 조합원이 요구불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출자금 평균잔액은 더 낮은 비중을 취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상위등급 조합원은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 둘 다 낮은 등급의 조합원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법인 조합원은 요구불예금에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요구불예금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자금 평균잔액에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어 출자금 평균잔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법인 조합원이 개인 조합원에 비하여 충성도가 낮고 거래의 목적이 다르거나 출자금을 예치함으로써 배당금에

의한 자산증식을 피하기보다는 일상거래의 편의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위등급의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조합원에 비하여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에 둘 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제1금융권인 은행을 대상으로 검증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신탁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조합원의 구성을 법인 조합원과 상위등급의 개인 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신탁 수익성의 핵심요금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 평균잔액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시초의 연구로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금리·저성장·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등에 따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탁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수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조합원의 확충과 상위등급 조합원의 유지가 수익성의 근간인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시의적인 결과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탁중앙회 및 단위신탁은 법인 및 상위등급 조합원의 관심과 결속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과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시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의 객관성과 표본의 동질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광주·전남 지역신탁의 개별 조합원에 국한한 점과 수익성 확장의 대용변수로 요구불예금과 출자금의 평균잔액으로만 측정된 한계점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탁의 지역별, 규모별, 조합원의 주된 구성 기준 등 다양하고 차별적인 특성과 다양한 수익성 변수가 검증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국외연구>

- Anderson, C. L., Locker, L. and Nugent, R.(2002), Microcredit, Social Capital, and Common Pool Resources, World Development, 30(1), 95-105.
- Birchall Johnstorn(1997),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 Bourdieu Pierre(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 Cristobal Dobrzanski, Sewoon Ju. 2018. 지역사회 의 신용접근성: 오늘날 소규모 신용협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1호: 135-161.

<국내연구>

- 강만수, 손희영, 하홍열. 2015. 잠재성장모형(LGM)을 통한 신용협동조합의 신규취급(담보,신용)대출 관계성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16권 3호: 221-245.
- 강상목, 정수임. 2020. 부실대출 메타효율성의 추정 : 부산·경남의 신용협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34권 4호: 87-112.
- 강성무, 김형준. 2018. 관계혜택이 고객만족과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권 2호: 125-137.
- 강성무, 류덕위. 2012. 신용중앙회 경영컨설팅이 단위신협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권 4호: 101-112.
- 강은경. 2005.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분석. 재무관리연구 22권 2호: 71-89.
- 고상순. 2003. DEA 모형을 이용한 전라북도지역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19권 0호: 221-249.
- 구정옥, 현정원. 2013. 신용협동조합의 합병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증소고.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27권 3호: 269-284.
- 구정옥. 2003. ABC를 이용한 신용협동조합의 금융상품 수익성 분석모형. 회계정보

- 연구 19권 0호: 197-220.
- 구정옥. 2020. 정부주도 경제개발기(1960~1981) 한국신협모델의 형성과 정착. 한국협동조합연구 38권 2호: 81-106.
- 권일숙 박래수, 정윤영. 2013. 신협의 수익성 결정요인 분석. 금융지식연구 11권1호 : 141-170.
- 권일숙, 설원식, 박래수. 2015. 단위신협의 특성과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금융지식연구 13권 3호: 67-93.
- 김명록, 최진배. 2016. 한국 지역신협의 성장의 특징. 지역연구 32권 4호: 75-90.
- 김병철. 2013. 비방사적 SBM모형과 Window Analysis를 통한 지역별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변화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6권 3호: 39-60.
- 김상민(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3권 제2호.
- 김성태, 배근호. 2015. 서민대출시장에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FP학회지 8권 3호: 143-165.
- 김종대, 조영석, 박송준. 2014. 부트스트랩 DEA 기법을 이용한 지역신협의 경영 효율성 분석. 금융공학연구 13권 1호: 101-127.
- 김태룡(2010), 『행정이론』, 대영문화사.
- 김태훈, 강철구, 윤호. 2020. 서민금융기관의 변화와 인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연구 -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변화와 여신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33권: 191-213.
- 김희창. 2017. Dynamic-Network SBM을 이용한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30권 1호: 189-215.
- 남주하, 최재원. 2017. 신협 부도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1권 3호: 183-204.
- 류덕위. 2008. 글로벌 금융 빅뱅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협동조합연구 25권 2호: 207-238.
- 류덕위. 2013. 소상공인 창업자금조달과 신용협동조합 역할과 발전방안. 벤처창업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6권 2호: 115-132.
- 박교순, 심준섭. 2017. 지역 금융 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가 책임성을 매개로 신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권 2호: 327-350.

- 박상춘, 고완석, 홍용식. 2018. Earnings Management and CEO Turnover in Korean Credit Unions. 국제회계연구 79집: 191-222.
- 박성욱, 김성태. 2021. 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8권 2호: 289-319.
- 박성욱, 신충휴. 2017.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4권 3호: 9-39.
- 박송춘, Park, 임홍수, 김성후. 2009.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금리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7권 1호: 55-75.
- 박송춘, 조영석. 2008. 기준금리를 통한 신용협동조합의 금리결정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권 1호: 1-14.
- 박우영, 박송춘, 김주환. 2011. 신용협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4권 1호: 47-75.
- 박정희. 2016. 국내 신용협동조합의 여신건전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 신협을 중심으로. 34권 1호: 25-46.
- 박정희. 2017. 협동조합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의 영향: 국내 신용협동조합 재무자료의 패널회귀분석. 35권 3호: 49-77.
- 박창수, 이정하. 2014. 우리나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결정요인 분석. 금융지식연구 12권 2호: 29-56.
- 배기수. 2016. 경영효율성 분석을 통한 서민금융기관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4권 2호: 297-316.
- 백자욱. 2011. DEA를 통한 서민 금융기관의 효율성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4권 3호: 1363-1378.
- 백자욱. 2020. 한 · 미간 서민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33권 4호: 1181-1199.
- 송재일. 2017. 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특히 신협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 한국협동조합연구 35권 2호: 127-155.
- 심재포, 백자욱. 2010. 서민 금융기관의 효율성 분석 -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3권 6호: 3223-3245.
- 은봉희. 2015.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민, 홍재범. 2013. 수산업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효율성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 연구. 15권 3호: 1503-1511.
- 이광민, 홍재범. 2013.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의 효율성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29권 2호: 95-113.
- 이덕수, 박의범. 2011. 한국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 행태.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8권 2호: 283-318.
- 이수진. 2017.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현황 및 신탁의 역할 제고 필요성.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9호: 14-15.
- 이은희(2008),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주원. 2010.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3권 0호: 217-248.
- 장종익 2003 역,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들녘
- 전선애. 2008.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6권 제1호:113-145.
- 정남기. 2011. 서민금융 침체의 원인 및 발전 방향. 14권 1호: 19-37.
- 조정은. 2012. 지역신탁의 자본적정성 강화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역사회연구 20권 4호: 201-218.
- 조택·배용수(2009), “로컬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제13권 제2호.
- 주선미. 2011.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본 신탁의 과제. 신탁연구 제57호: 43-76.
- 최진배, 권오혁. 2018. 정부정책과 신탁: 신탁법의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34권 3호: 301-336.
- 최진배, 권오혁. 2018. 참여, 민주적 관리 그리고 한국의 지역신탁. 협동조합경영연구 48권 0호: 29-52.
- 최진배, 김명록. 2016. 한국 금융협동조합과 대리인 문제: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34권 3호: 1-20.
- 최진배, 김명록. 2017. 금융협동조합은 서민금융정책에 적극적인가? - 햇살론과 신탁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경영연구 47권 0호: 109-131.
- 최진배. 2004. 신용협동조합의 존재이유. 지역사회연구 12권 1호: 47-71.
- 최진배. 2009. 지역금융활성화와 신용협동조합의 과제. 25.3 (2009): 101-136.
- 최진배. 2010.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6권 4호: 307-341.

- 최진배. 2013. 1980-90년대의 금융자율화와 신탁의 대응. 지역사회연구 21권 4호: 21-47.
- 최진배. 2015. 한국 신탁의 세 가지 도전적 과제. 31권 2호: 133-162.
- 최진배. 2016. 협동조합은행의 변화와 한국 신탁의 진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4권 1호: 95-121.
- 현정환. 2018.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확대가 여신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금융지식연구 16권 2호: 65-85.
- 현정환. 2018.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다각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9권 3호: 37-50.
- 협동조합경영연구. "국내 신용협동조합 대출 결정요인의 패널분석. 36권 3호: 23-44.
- 홍봉영, 구정옥, 최승은. 2002. 신용협동조합의 생산성 변화 측정: 1997~2001. 금융학회지 7권 2호: 93-111.
- 홍봉영, 구정옥. 2000. DEA를 이용한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평가. 재무관리연구 17권 2호: 277-292.